

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7월8일(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국토교통부 소관
3.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업무보고
 - 가. 국토교통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다. 새만금개발청
 - 라. 국토분야 소관기관(10개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감정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새만금개발공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마. 교통분야 소관기관(7개기관)
 -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SR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 가. 국토교통부 소관
3.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4. 업무보고 3

가. 국토교통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 새만금개발청

라. 국토분야 소관기관(10개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감정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새만금개발공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마. 교통분야 소관기관(7개기관)

-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SR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민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자 입법조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토위원회가 약 100일 정도의 공백을 깨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크고 작은 이견이 있었습니까라는 이제 국회가 정상화된 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 합심해서 국토·교통과 관련한 모든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 내외의 각종 통로를 통해서 국토교통위원장 교체에 관한 여러 가지 억

측이 나돈 바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제 거취 문제를 표명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 부동산 그리고 교통 등 각종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국회의 역할에 걸맞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보임되어 일했던 경험은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필요조건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토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나설 때부터 저에게 위원장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해 준 분은 없습니다. 국회법 규정이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관행은 이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본회의에서 선출된 만큼 국회법 취지에 맞게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

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추경예산안과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상정하여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신 조응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조응천 위원입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명품 상임위 국토교통위에 오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행운이다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가 경기 남양주입니다. 수도권 초성장 지역으로서 주택 문제, 교통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원내 지도부의 배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 특히 앞에 계시는 자유한국당 또 야당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국토부를 비롯한 소관 기관들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회의에서 아직 선임 인사를 하지 못한 정부인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인 김경욱 제2차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

원공사 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및 소관기관장 인사)

그리고 오늘 박선호 1차관이 장관을 대신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김경욱 2차관이 장관을 대신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오후 회의에는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이스라엘 IAI사와의 항공기제조개혁 MOU 체결을 위해서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이스라엘 출장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식 의원, 민경욱 의원, 함진규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맹우 의원, 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혁신도시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바로 회부됨을 말씀드립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사 요청에 따라 조응천 위원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국토교통부 소관

3.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업무보고

가. 국토교통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 새만금개발청

라. 국토분야 소관기관(10개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감정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새만금개발공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마. 교통분야 소관기관(7개 기관)**
-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SR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국토교통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작년에 어렵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또 광역교통위원회가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갖도록 하자고 작년에 그렇게 의결해서 3월 19일 날 광역교통위원회가 많은 기대 속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보니까 오늘 별도로 광역교통위원장 보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행정실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 안에 있어서 내부 기관이라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광역교통위원장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구두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키워 줘야 대외적으로 활동할 것 아닙니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해명을 해 주시고 광역교통위원장도 업무보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현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이현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 대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독립 외청이 아니고, 청이 아니고 국토부에 소속된 국토부 내의 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은 그런 소속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지는 않지만 이현재 위원님의 말씀 따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도시광역위원회 최기주 위원장께서 바로 답변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업무보고와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하반기 첫 상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추경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봄 수도권 미세먼지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 등의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1970년대에 집중 건설되었던 SOC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외 경제 여건은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국민의 안전 확보, 미세먼지 대응 그리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이면서 집행 가능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조속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역량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하 전 직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전방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건설, 물류 등 주력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고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과 전략적 해외 진출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일터에서 삶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기반시설의 노후화, 투자재원 부족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추락사고,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2022년까지 건설현장 및 교통안전 분야의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를 살리고 포용적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범사업 68곳을 모두 착공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새만금과 같은 사업을 통해 지역투자 및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약 2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조기에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충분한 주민 소통을 거쳐 김해, 제주, 울릉 지역의 공항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고 3만 불시대, 인구감소, 저성장, 한반도 평화 등 미래 이슈에 대비하여 국토·교통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호,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 등 금년 중 총 20만 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4만 5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청년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 맞춤형 지

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확산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지역별 주택시장을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보완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신설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광역버스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주요 간선망도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이고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노선버스 주 52시간을 안착시키는 한편, 전통산업인 택시 업계와 미래 신산업인 플랫폼 업계 간 상생과 혁신을 이끌어 내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상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현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박순자 민경욱 위원님.

○민경욱 위원 장관 인사말씀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미리 했을 텐데, 추경 관련한 사업 설명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 목적·근거·내용·결산내역 등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수차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이 9243억 원인데 세부사업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창출 효과와 근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장관님, 저희 당에서 지난 5월 29일 날 차관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이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혹시 장관님이 그것 지시한 사항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덕흠 위원** 지시한 사항은 아니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모르겠는데요.

○**박덕흠 위원** 산불피해대책, 차관님 참석을 요청했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모르겠는데요.

○**박덕흠 위원** 장관님은 모르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덕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욱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관 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장관님, 이 내용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따 회의 중에라도 민경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자료요청 진행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순자** 아니, 인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 인사말씀 끝나시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강훈식 위원** 자료요청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자** 아니, 나중에 합니다. 아직 기관장 인사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진숙**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

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이전과 함께 주택·교통 등 정주 인프라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 인구가 23만 명, 세종시 전체로는 3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만족도 높은 정주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3개의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행정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권 상생발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우선 행안부·과기정통부 이전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정부세종청사 설계를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건립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반영, 설계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문화관광자원 연계 등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윤관석 간사와 사회교대)

둘째, 공동캠퍼스, 첨단 스마트시티 등 도시혁신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산학융합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동캠퍼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공모에 착수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5-1생활권은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시민 행복을 높이는 인간중심의 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자율주행차 실증 지원 등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 등 친환경도시로 계속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거·교통 등 수준 높은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주택 9000호를 소득·연령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추가 이전기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특별공급제도를 개선 중이며 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지 공급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중심도시 완성도 제고를 위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박물관 설계, 중앙공원 1단계 사업 준공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화재·추락 등 위험요소별 맞춤형 안전대책과 함께 현장 휴식시간 보장, 편의시설 설치 등 근로여건도 개선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김진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0일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 김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리 청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새만금개발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공공주도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었고 장기임대용지 확충 및 임대료 인하로 투자 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금년에는 환황해경제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만금개발청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도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5월 말에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겠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물류·교통여건 개선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동서·남북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2023년 상반기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항, 항만,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도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고 이를 마중물로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일부 발전사업자 공모가 진행되었고 제조기업과 연구기관의 입주도 성황리에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새만금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모빌리티·융·복합 클러스터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전략산업 추진 기반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는 한편 새만금을 명품 관광 및 문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신시·야미 용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노마드축제 등의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새만금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 많이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을 포함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투자유치 국가를 다각화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진개를 통해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9월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만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난·안전·환경 분야에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7대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만금이 국가 성장동력이자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국토 분야 10개 소관기관과 교통 분야 7개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도시금융융합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매년 지자체 수요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왔는바 계획성 있게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연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본예산 중 171억 원을 자체 조정하여 포함 흥해 특별재생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 중이고 2019년도 본예산 중 상당부분이 이월·불용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본예산의 자체 조정을 통해 충분히 편성·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사업은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펀드의 안정적·체계적 운용을 위해서는 펀드의 설치근거, 펀드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회계 관련 사항 등을 해외건설 촉진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중기사업계획서에 담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경예산이 재해 예방 등 하천의 안전한 관리에 도움이 되겠으나 향후에는 본예산에 매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전기 저상버스 도입 물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특정 제작업체에 제작 물량이 집중될 경우 연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자체가 연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보조율을 잘못 산정한 서울특별시 보조액 일부를 감액하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수소 저상버스 구입 보조를 위해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국도 건설 사업은 조기 준공 가능 구간 위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춘천-화천, 포항-안동2 등 일부 구간의 전년도 예산이 상당부분 전용·이월되거나 금년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구간 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도로시설물 점검용 드론 구입비용을 반영하였으나 이를 위한 드론활용 교육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내 드론 활용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임무 특화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적정 활용 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최근 3년간 매년 공공요금이나 소송 관련 배상금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타 사업으로 예산액 전용이 발생하였고, 이월액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노후 SOC 유지보수 강화라는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은 내역사업의 하위사업은 별도의 이·전용 또는 조정 절차 없이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있고 국회 및 감사원의 결산심사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들은 별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 자동측정망 설치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공조기 전면개량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 종합적인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재정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 SOC 사업의 경우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보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주택 2133호를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2019년 들어 매입계획 물량이 급증하고 매입주택의 유형이 다양화된 만큼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제시하고 매입 이후 입주까지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대리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대체토론이 종료된 후에 예산결산

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장관님, 잠원동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나가던 예비 신혼부부가 사망하고 큰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최근에 지방청 단위의 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상반기 중에 지방 국토관리청에서의 안전점검 실적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제 여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제보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상반기 중 안전점검 실적과 또 현재 안전 관련 조직운영 실태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장관님, 예산 보니까 2쪽에 환승센터 운영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제출해 주십시오. 오전 중으로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국토부 자료 9페이지 보면 3조원대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 추진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방침을 내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생활형 SOC 관련해서 19년 상반기에 22곳 선정 완료 현황 그리고 하반기에 70곳 내외 선정 예정계획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 관련된 추진 상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4페이지에 예타면제 사업별 현재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요. 다만 관련 사업 중에 내년도 예산에 부처 안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5페이지에 혁신도시 시즌 2 성과를 가지화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131개 추진과제별 현재 구체적인 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3종 패키지 관련해서 국토교통 정책펀드 도입 그리고 기술금융 연계 프로그램, 창업 인큐베이팅 관련 기획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함진규 위원님.

○**咸珍圭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스마트시티가 184에서 705억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415억이 709억으로, 드론이 492억에서 75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하고 상세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가 데이터·AI·수소경제인데 이름만 있고 내용하고 예산에 관한 것이 없어요. 수소충전소 설치하고 환승센터 운영 구축 이것도 예산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 본격 추진 4638억에서 6463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상세내역하고 이런 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관심 분야인 드론이, 금년 7월에 드론 실증도시 선정 및 착수를 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것, 아울러서 전용 체계와 관련되는 K 드론 시스템 R&D 2단계 추진하고 있는 것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준공 및 시범운영을 8월 달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영월·고성, 고성이 강원도 고성을 말하나요, 경상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남 고성입니다.

○**咸珍圭 위원** 그러니까 영월·고성·보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주시고.

장관님, 아까 박덕흠 간사님이 얘기하셨나요? 산불대책회의를 하는데 왜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것 장관이 했냐 안 했냐, 아냐 모르냐만 물어

보고 간사님이 그냥 마무리를 안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불대책회의가…… 피해가 지금 복구가 다 안 되고 있고,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지금 피해 복구가 다 안 되어 있고, 완벽하게 안 끝났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좀 그래요, 이게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느 당이든, 1명이 있는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추경까지 들어올 거면서 그리고 피해 복구가 다 안 된 상황인데 미리 선제적으로 불이 났어도 정당에서 부르면 미리미리 가서 설명을 해 주면, 추경 심사할 때도 당의 수뇌부가 찾으면, 이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왜 그래요, 공무원들이? 장관이 못 가게 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날이……

○咸珍圭 위원 아니, 모르면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날이 을지훈련 일제 소집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까지 전 직원이 세종시에 집합하는 날이어 가지고요, 저희도 그날 모든 직원이 7시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러면 정당에 설명이라도 해주고 오후에 간다고 그러든가 해야지 불필요한…… 정확한 사실을 모르면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로 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咸珍圭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단 1명이 있는 정당에서 요구하더라도 그걸 순기능적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가서 설명을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무슨 살바 싸움 하듯이 가라마라 설명도 없이 안 와 버리고 핑크 내 버리고, 그것 옳은 거라고…… 국회의원 해 보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정확하게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래서……

○위원장대리 윤관석 잠깐만요, 자료요구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런데 어쨌든 그날은 일시가 조금 부적절……

○위원장대리 윤관석 다른 분들 자료요구도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로 간에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가만히 좀 있어 봐요, 민주당. 왜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할 소리를 내가 해 주는데? 야당 되면 본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본인도 불렀는데 공무원들이 안 왔으면……

○위원장대리 윤관석 아니, 함 위원님, 그것 이따가 또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咸珍圭 위원 그냥 무조건 입만 막으려고 그래, 어떻게 된 게? 야당 안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당만 할 거예요, 계속 한 50년?

○박흥근 위원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咸珍圭 위원 무슨 상관이나마나 내가 얘기하면 가만히 계셔, 왜 자꾸 발언을 방해하고 있어, 나를 잘 알면서?

장관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민주당이 부를 때만 달려가지 말고 같이 다 보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사전에 서로 충분히 협의가 됐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咸珍圭 위원 어쨌든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다음은 또 다른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2015년 1월 달에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하여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광역자치단체장의 협의사항을 파기하고 최근에 부·울·경 3개 단체장의 요구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울·경 검증단의 용역에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또 부·울·경 검증단의 용역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사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지금 많아요. 지난 국감 때 커피 메이커 납품 비리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부 제보에 따르면 김포-과주 제2 외곽순환도로 지하공사에 도로공사 사장께서 응찰한 3개 업체 중에 특정 업체 한 군데를 낙찰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 거기에 불응한 건설본부장, 부사장 사표를 제출받은 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부사장은 ‘사장님이 이런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 구속되어서 감방 간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시하고 원칙대로 공정하게 업체 선정을 하라고 해서 도로공사 사장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업체가 낙찰된 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월 7일자 상황인데, 사표를 수리받은 게.

아마 몇 군데 제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관석 예,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업무보고를 별도로 안 하고 자료요구는 한 쪽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대리 윤관석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현재 위원 업무보고는 별도로 안 하고……

○위원장대리 윤관석 아까 업무보고는 자료로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이현재 위원 장관님,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까.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신도시가 공청회나 설명회가 제대로 못 되고 무산된 데가 많은데 공청회·설명회 어떻게 됐는지 진행 상황, 그다음에 신도시를 할 때 자족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거기 보면 자족기능이 되려면 기업이 들어가서 산업단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공식적으로 각 신도시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자족시설용지라고 해서 산업단지 기업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성원가로 되는지 아니면 감정가로 되는지, 그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또 이주대책 이게 선 이주, 또 보상도 시가보상이 되어야 되

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입장, 그다음에 도로를 많이 건설하는데 신도시 중심이고 기존 이미 발표한 주택단지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에 지하철을 건설한다고 해서 예타를 면제하고 바로 LH 부담으로, 그러니까 주민 부담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위가 광역교통망으로 되는 건지 도시철도로 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택시 관련해서 ‘타다’ 대책이 언론에 보면 곧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타다’ 대책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지금 대책 마련된 거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위원장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예.

○이현재 위원 8월 달에 광역교통망 구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신규 도시 중심으로만 갈 게 아니고 조성 중인, 입주 중인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망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저도 광역교통위원장님과 국토부장관님, 차관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신도시한다니까 신도시만 신경 쓰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교통망 또 주거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망이 광역교통대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LH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이현재 위원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같이 한번 좀 주시면 좋겠는데, LH가 상당히 돈만 벌고 사업장을, 신도시를 기존 도시 구상에서 나간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대규모 사업장 약 한 100만㎡ 이상의 총사업비와 LH가 거기서 이익이 얼마 났는지, 그 이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기존 신도시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교통대책이 당초보다 얼마나 지연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 자료는 LH, 국토부에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다음 민경욱 위원님.

○민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그 자료를 저에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터키 평가할 때 이와 관련된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를 했으면, 임원 회의할 때 사장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니까 그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정 업체가 배제되고 또 특정 업체가 선택이 되고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 입찰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다음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장관님, 혹시 ex-cafe, 테쿰 관련 국토부에서 감사한 적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안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게 여러 경로로 해서 사건이 이렇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경욱 위원님 얘기했던 간부회의 자료라든가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 저한테도 좀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ex-cafe에 대해서는 감사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관님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윤관석** 함진규 위원님.

○**咸珍圭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ex-cafe를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국토위원 중에서 제가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수평적인 그런 감사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한 게 아니고 제보가 우리 방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때 당시에 사장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속기록을 한번 저한테, 저희들도 찾아보겠지만 좀……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작년 국정감사 때 함진규 위원이 한번 거르고 간 거다, 이미.’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청와대의 뜻은 ‘이미 한 번 거른 것인데 그것을 왜 또 얘기를 하나’ 이런 식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할 때.

그런데 그것은 바로잡아야 될 게 그때 ex-cafe의 그런 커피 문제에 대해서 도로공사 매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제보를 받아들여서 질문을 했는데 없다고 답변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청와대에서는 이게, 최근에 온 것은 ‘함진규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저를 잘못 인용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사장이 답변하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했던 것, 그다음에 그때 공사 사장이 답변하셨던 내용 이것 전부 주시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당사자인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거짓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저한테 일단 답변 자료 일체를, 그 이후에 조치 취한 것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위원장대리 윤관석**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들 더……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추경예산안 6200억 증가한 중에도 도로가 한 1500억 되네요. 이것을 지역별로 좀 뽑아 주시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우리 방에서 뽑아 보니까 굉장히 지역 편차가 커요, 지역별로. 아무리 추경이지만 지역 균형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에 대한 예산 1490억을 지역별로 바로 뽑을 수 있지요, 분석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정동영 위원** 그다음에 작년 국감 때 100대 대기업의 토지 보유 현황, 10년 전 이명박 정부 초기, 시작 전에 100대 기업의 토지 보유 현황과 10년 뒤의 토지 보유 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준다고 그랬는데…… 토지실장이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여튼 아직까지도 계속 그것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그것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예요.

10년 전에 30대 재벌 대기업 계열사들이 전국에 나대지 8억 평 갖고 있던 것이 10년 뒤에 18억 평으로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부 내

역 중에 100대 대기업의 토지 보유 현황을 제출하라, 그래서 국감 때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담당 실장님이 누구시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것 왜 안 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이문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정동영 위원** 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하면서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는 ‘국토재벌부’가 아니라 ‘국토국민부’, ‘국토서민부’가 돼야 되는데……

국감 때 분명히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이문기** 그때도 분위별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정동영 위원** 실장이 지금 100대 대기업의 무슨 대변인이요, 무슨 경호실장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알자 이 말이에요, 알자. 국민의 대표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차일피일……

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라야 될 것 아니요? 투명성, 공개성 늘 얘기하면서.

실장 앉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정동영 위원** 그다음에 전국에 통학버스, 통근버스, 관광버스가 4만 5000대 있어요, 전세버스지요. 그런데 법에 보면 지입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4만 5000대 가운데 4만 대가 지입이에요. 관광버스나 통학차의 운전기사가 전부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법 따로 현실 따로를 지금 몇십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실태조사가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버스조합 통계를 인용해서 ‘88%가 직영이다. 12%만 지입이다’ 그러는데 소가 웃을 얘기예요.

지난주에 정책토론회를 했고 그때 국토부 사무관이 참석했는데요. 이것 장관께 보고를 해서 당장 전국의 지입차 실태를 파악해라……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야 정책 개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관께서 4만 5000대 실태조사를 교통연구원이나 줘서 이것 분명히……

지금 현실 따로 법 따로예요. 그런데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전국 도처

에서 실패 사례들이 속출해요. 이게 대안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지입 전세버스 실태조사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저는 간단한 현안 두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하면 4차 산업 요소 기술들을 적용하고 테스트하고 배양·발전시키는 도시로서의 최고의 플랫폼이지요. 어찌 보면 세종하고 부산이 전 세계에서는 최초로 순수하게 스마트시티로만 설계되는 유일한 도시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용하고 행정적 부분이라든가…… 아무래도 세종과 부산이라는 기성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는 거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공간 자체에는, 스마트시티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행정적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과 결합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노하우가 쌓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마스터플랜이 다 세워져서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데 주로 이 도시, 한 80만 평이 넘는 이 두 국가시범도시에 대해서 콘셉트라든가 마스터플랜을 특위하고 MP가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황희 위원** 그런데 정작 이것 실행 과정에서는, 실제 설계를 특위와 MP들이 했는데 실행 과정에서는 이 MP들이 패싱(passing)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산의 반영이라든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 기술들이 어떤 기술

들이 적용될지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MP 역할이 없는 거지요.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콘셉트를 만들고 했는데 원작자가 사실 여기서 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면 저는 이해는 갑니다. 왜 이해가 가냐면 아마도 MP들은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림은 MP들이 짓더라도 모든 책임은 해당 공무원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뭔가 협의하기 전에 MP들한테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미리 업체들도 사전에 MP들과 논의가 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이런 것을 한다든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국가시범도시를 하는 국토부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책을 해 줘야 돼요. ‘나중에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들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특위와 MP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국가시범도시라는 게 정말 원활하고 순수하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걸림돌 때문에 오히려 커다란 대의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종하고 부산에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위하고 시행하는 쪽하고 MP하고 또 저희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MP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희 위원**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장관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그런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터 주는 것이 오히려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 두 번째는 안전진단 관련해서인데

요.

보통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모든 건물들이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 산정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재건축,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해서 강화됐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련된 이런 대가 산출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건축에 대해서만.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유별난 게 뭐냐면 이것은 구조 안전성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설비 노후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비용분석 분야의 이런 비용은 시설물 안전 지침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이 지침을 보면 구조 안전성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 인원수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침이 아예 없어요. 지침을 준용하라고 그랬는데 그 지침에는 준용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해서 비용……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한 6개 동을 안전 진단하는 비용이나 11개 동을 안전 진단하는 비용이나 같습니다. 이게 원래로 보면 2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전진단 비용이 제각각이에요. 이러면 결과가 이상하게 또 제각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공정하지 못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겠지요, 지침 자체가. 그러나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설비 노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말씀하신 시설물 안전 지침의 내용에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장관님, 오늘 청장님 두 분의 여성 기관장님이 오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참석자 명단 전체가 한 20여 페이지 되거든요. 이 중에 오늘 나오신 두 분하고 장관님 빼고 여기 몇 분 여성분이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명단에 있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에는 없을 것 같고요.

○강훈식 위원 국토부에는 없고, 전체 다 해서 한 1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두 분 계세요,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LH에 한 분 계실 것 같고……

○강훈식 위원 딱 두 분 계세요. LH에 한 분 그리고 국토교통과학 여기에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후에 관심 좀 꼭 가지고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아시겠지만 내부 승진하는 자리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물론이지요. 물론 그것은 맞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장은 많습시다. 과장은 많이 늘었습니다.

○강훈식 위원 빨리 승진시키시든지 해야지요, 방법을 찾으셔서 갖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강훈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쭙볼게요.

논란도 많고 장관님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3기 신도시 그림 어느 정도는 직접 완성하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강훈식 위원 아니, 완성 안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요?

○강훈식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야지요.

○강훈식 위원 완성해야지요.

주요업무 추진 현황 잠깐 보면, 현황 22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7월 첫째 주 상승 전환됐다. 하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HUG가 분양가 규제에 공급을 줄여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또 분양가 규제 이후에 58개 단지의 4만 8000여 가구가 29개 단지의 2만 700

가구로 절반 이상 분양이 줄어들었는데요.

분양가 규제할 때 이러한 반작용도 검토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강훈식 위원 그림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청년이나 서민들은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는 집 사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서 도입하는 추가 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의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양시장은 99%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심화된다고 한다면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 자체가 없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핀셋 규제’, 정확하게 과열된 것들만 규제해 나가고 활성화할 것은 활성화해서 부동산 경기 자체를 죽이는 것은 또 막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에 좀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정부 들어서 지방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가 더해진 것은 부산의 3개 구하고 대구의 수성구 그리고 세종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 새로운 규제가 첨가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방 주택시장이 어려운 것은 과거에,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착공했었던 물량들이 지금 완공되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과

도하게 나왔던 물량들이 중첩되어서 물량 과잉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이 한 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제 같은 경우 조선산업이 회복되면서 마이너스였던 거제 부동산시장이……

○강훈식 위원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봤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환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경제를 살리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임차인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들을 취하는 것 이것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훈식 위원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따로의 대책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훈식 위원 차별화해서 검토하실 의향도 없으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시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8페이지……

감정원장님 계시지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예.

○강훈식 위원 그냥 간단하게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한테 여쭙보면서 감정원장님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청약 시스템 공공성 강화하면서 우리가 운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맞습니까?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준비 다 됐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답변할게요.

○강훈식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감정원으로 이관된 상태가 클리어(clear)하게 된 상태는 아니어서……

○강훈식 위원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감정원장님은 아직 이관받은 상태가 아니십니다.

○강훈식 위원 아, 법 통과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리고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조속하게 통과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원은 법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이 업무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감정원이 작성한 자료 보면 ‘첫 번째,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두 번째 부동산 통계 제공, 세 번째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질서 확립이 주요 업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강훈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위 감정원 3법을 2015년에 통과시키면서 기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 검토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국토부도 이것 검토한 것 같은데 왜 명칭 변경 안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당시에 부결됐던 거고요. 사실은 지금 감정원이 하는 일하고 ‘감정원’이라는 이름하고 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군 2에 보니까 131개 사업비에 4조 2794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인데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 충남은 이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역차별 받고 있다라는 지역의 목소리 있는데요.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합의 같은 게 필요할 때라고 보고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전·충남 지역에도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예.

김현숙 청장님, 한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3개 품목 수출 규제하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새만금이 작성한 자료 1월 15일자

에 보면 일본의 모 기업 투자 동향에 반도체용 특수가스에 관련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새만금개발청장 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이것 좀 미리 알았으면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우리가 선제적 대응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청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어떤 조치 하셨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 김현숙**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데에서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아직도 그 관계는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여서 1월 달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마지막 1월 달에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에 그쪽 태도가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 이것을 좀 낮추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의견하고 저희 청 말고도 우리나라에 세 군데 후보지를 더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이것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였지 이게 일본하고의 이런 관계에까지 번지리라고 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지금도 해당 기업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경기 하남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신도시 만들어서 30만 가구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현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 경기도 수도권에 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에도 4만 호를 합니다.

○**이현재 위원** 서울에도 일부 하지만 대부분 경기도하고 인천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도시

를 만들 때 사후적이라도 그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한 50차례 정도 주민간담회 하고 있고요.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겠지요, 그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공청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런데 장관님,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보면 설명회도 제대로 안 됐어요.

설명회는 5개 지역 전부 무산이 됐고 공청회는 하남 교산의 경우는 무산이 됐고 왕숙지구도 속된 말로 난장판이었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고 가서 되겠습니까? 사후적으로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공청회는 진행 중에 있고요.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도 LH하고 기업대책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장관님, 그것 협의되고 있는 것은 알고요. 설명회도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후적으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시가보상과 생계대책 또 교통대책 이런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중심인 국가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사람, 수도권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철저히 지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리고 한 50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수용되는 분들이 보면 또 양도세를 내요. 이것은 국가가 목적으로 하는 것에 일방적으로 수용하는데 양도세까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양도세 감면 법안을 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장관께서 경제부총리와 협의해서 양도세는 감면될 수 있도록, 한도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현금 보상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토 보상이……

○**이현재 위원** 장관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수용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현금 보상도 있고 채권 보상도 있지만, 조건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감면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시자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현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만들면서 광역교통대책을 하는데……

도면 좀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밀의 우측이 미사신도시입니다. 여기가 10만인데 우측의 과란 데 있는 데가 주출입구입니다, 선동IC라고 하는 데인데. 그런데 강 건너 남양주에 왕숙신도시를 만들면서 미사신도시의 2배를 만들어서 저 과란 선 있는 쪽으로, 미사신도시의 주출입구가 지금도 만성 정체라서 저기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왕숙신도시에서 넘어오는 다리를 놓는다는 겁니다, 수석대교. 이렇게 되면 신도시 때문에 미사신도시는 완전히 그냥 교통지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왕숙신도시 만들면서 다리를 놓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를 좀 바꿔서…… 저 하얀 게 외곽순환도로입니다. 강동대교인데, 저 옆으로 붙여서…… 노란 선이 주민들이 대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정해서 왕숙 문제도 해결되고…… 기존 미사신도시가 왕숙 때문에 교통지옥이 되는 것, 그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전향적으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기존 신도시 주민들도 교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런 다리를 놓으면 하남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하남시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신도시가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혀 협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이현재 위원** 사전에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닙니다. 수석대교를 놓을 경우에 올림픽대교를 확장한다든가 이래서 양쪽의 교통이 보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현재 위원** 장관님, 그것은 사후적으로 된 것이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장관님의 ‘없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의 시장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현재 위원** 그다음에 기존의 신도시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교통위원장님 답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장관님께도 건의서를 전달했는데, 미사신도시 보면 5호선이 18년 개통이 되게 했는데, 이게 빨리 해서…… 강일 때문에 2년 늦어져서 내년 4월로 이렇게 됩니다. 9호선도 3년 전에 미사 구간 확정됐는데 강동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 신도시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고 특히 지금 5호선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적극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작년 에 개통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 4월, 그래도 2년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4개월 이상 늦어지는데 적어도 한두 달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광역교통위원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동안 많이 챙겨 주셨는데 이게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다음에 9호선 지금 말씀드렸는데 9호선이 저 도면에 보면 앞 구간 강일 구간은

최종 확정됐어요, 강동 구간. 저 빨간 것이 이번
에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뒤 구간인 강일-미사 구간은 3년 전에 확정
이 됐습니다. 3년 전에 확정시켜 놓고 앞
구간이 안 돼서 지금 3년 동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광역교통 계획으로 광역철도로 해 달라고
요청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광역교통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
도록 하고 또 8월 달에 광역교통망 구
상을 발표할 때도 반영해서, 저런 것을
해야 시민들도 안심이 되고 ‘이제 뭔가
교통이 되겠구나’ 하는데 이게 서울시
하고 경기도 차이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
시만, 경기도는 경기도만 챙기는 겁니
다. 이게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장관님께서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만드신다고 작
년에 고생을 무지하시고 1등 수훈감이
신데, 그랬으면 광역교통 위원회가 되
었으면 저런 것을 풀어 나가야 ‘아, 정
부가 조직을 만드니까 풀리는구나!’ 이
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호선
좀 빨리 당기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9
호선 저렇게 단절된 한 구간 광역교통
망 구상에 넣어서 조기에 확정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5호선 강일역 부
분은 저희가 내년 4월에 개통이지만 최
대한 한두 달이라도 당겨 보기 위해서
계속, 저도 참여를 몇 번 했고요.

○**이현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
십시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9호
선 문제는 지금 현재는 보훈병원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예타 통
과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현재 8월에 광역교통기본구
상에 집어넣고 지금 현재 한국교통연
구원에서 광역교통시행계획 5개년
과 기본계획 20년짜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이 되
어서, 강일-미사 구간은 아직 예타가
통과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시를 연
결하는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예, 그렇게 잘 정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이현재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경기도 안산 상록
을의 김철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안산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
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사
항이 무엇이나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
민들의 40%가 주차장이 없다, 주
차장. 주차장이 시급하니까 어떠한
민원보다도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
급하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
왔습니다.

장관이 아시다시피 차량 보유
대수 2300만 대,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많은 건 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철민 위원**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지만 제가 좀 읽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
는 공전, 공해 이것으로 인해서 기
름도 많이 소모되고 배기가스 배
출량도 많아지지요. 또 미세먼지가
늘어납니다. 이면도로, 간선도로
할 것 없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도로 정체가 일어나지요. 또 이
것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 이웃
간의 분쟁도 발생합니다.

그걸 제가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해
 봤는데요. 지자체가 지금 주차
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가장 중요
한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을 확
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시내 도심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서 비싼 땅을 사기 위해서는 지
자체의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요. 그리고 또 주거 지역에 주차
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심 지역의 비싼 땅 대신 보전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녹지공
간 등을 활용해서 주차장 전용
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시 외
곽 지역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
트를 주차장으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
세가 필요한데, 제가 주차장 150
면을 만들기 위해서 10년간 안
산시장 재임 때부터 해 보았
는데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으로 조건을 달아서 국토교통
부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안
산시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심각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 부지 확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지
자체에 도움을 주셔야 될 것
으로 알고 있고요.

또 주차장 업무가 지자체 업무로 이관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보았더니 생활 SOC 사업이 약 4조 1500억인데 그중에서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이 645억입니다. 전체의 1.5%예요. 제가 보았더니 34개 항목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인데 오히려 이 사업들을 가장 밑으로 내렸고 금액도 낮추어 놓았습니다. 645억을 226개로 나누어 보았더니 1개 지역구에 2.8억이 나갑니다. 2.8억이면 얼마나 하면 주차장 1대 설치하는 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약 5000에서 1억 들어갑니다. 주차장 3~4대밖에 못 만듭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주차장 환경개선에는 돈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심각한데, 국토교통부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자체가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자체장을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을 사는 것을 지금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

○김철민 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용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린벨트라든지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국토교통부가 도움을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GB 내에서 훼손된 경우에 GB 내 일부를 주차장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예산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정책 방향이 서야 예산이 나오지요.

○김철민 위원 아니, 어떻게 654억이 편성되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리고 이게 다 중앙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방정부도 일정 부분을 매칭을 해야 돼서……

○김철민 위원 아니지요, 첫 번째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 내에서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법제실하고 저하고 안산시하고 며칠 전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무 책임자 과장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께서 얼마나 힘이 드신지 절대로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참석을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토론회에 참석한 예가 없답니다, 예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데 다 참석했는데 본인이 답변하기 귀찮으니까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통해서 간청을 했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시민들 앞에서 일장 훈시를 하고 갔습니다, 훈시. ‘여러분들, 주차장 부지 왜 부족하나? 시민들이 불법주차 많이 하고 주차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시민들이 똑바로 주차질서 지키고 불법주차하지 않으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 웃지 마세요. 이것 지금 저희들이 녹취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장관, 그 과장을 욕했겠습니까? 장관님을 욕했지요. 이것 한번 보시고……

이렇게 실무를 지도하고 계시는 실무 부서의 책임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오셨으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서 적절하게 답해 주고 아픈 곳을 좀 긁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할 일만 하고 가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 한번 따져 보시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부산 남구울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장관님, 공원 일몰제의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에 아주 복잡하게 조율을 많이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아시다시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방치된 미개발 공원을 뜻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일몰제에 의해서 앞으로 1년 뒤에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가 되는 340km² 규모의 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 속의 허파인 도시공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한 340km² 중에서 국공유지 90km²는 그 실효를 10년 동안 유예시켰고요. 130km²는 지자체, LH 등이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km²는 이게 산비탈이라든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든가 이리해서 이게 실효되어도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40km²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부 대책을 2년에 걸쳐서 마련했습니다.

○박재호 위원 장관님, 서울시나 부산시·경기도 등 이런 단체장마저도 이번 대책에서 국고 지원이 빠진 알맹이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얘기는 하는데요.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박재호 위원 아,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장관님, 올해부터 지방채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그것 법적 근거가 뭐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박재호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거기에 보면 44조 1항인데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 더욱이 시행령에는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지금 해 놨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그런데 이 법 따라서 이자는 되고 매입 비용은 안 된다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그래서 도시공원의 사무가 30년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지고 이관이 되어서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게 20년 전에……

○박재호 위원 그러면 이전에 국가가 지정해 놓고 방치한 시설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것은 20년 전에 공원을 지방사무로 넘기면서 지방교부금을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사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그 준비도 하나도 안 됐고, 그렇지요? 그동안에 국가에서도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아 놓은 돈이 작년부터 좀 문제가 되니까 아마 모아 놓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관님 공공토지비축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LH가 토지은행을 설립해서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적소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공적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장관님, LH의 토지은행 재원은 모두 공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뿐입니다. 현행법에 LH가 매년 이익금의 40%를 적립하고 있는 토지은행 적립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현재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약 4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한 푼도 지금 안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올해부터 이제 장기미집행 공원의 2.1km²를 하려고 합니다, 공원으로.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돈을 좀 활용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지자체하고 원활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도 이것을 우선 입법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공원 일몰제 내용에 대한 입법안을 도출해서 제출을 할 테니까 장관님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박재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아까 강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마다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정지역이 아까 이야기했던 세 군데가 안 되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더 과열됐던 해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를 장관님 한번 가 보셔서 지도를 한번 펴 놓고 보세요. 보시면 바닷가 쪽은 아주 토지 과열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반송이나 안쪽에 보면 진짜로 서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 단위로 조정지역을 묶어 버리니까 어찌 보면 반송이나 반여동 이런 지역은 아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서울의 땅값을 잡기 위해서 지방을 다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계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요.

대신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도 부산 같은 경우는 조선업하고 자동차 산업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경기가 완전히 이것은 죽은 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일 뿐만 아니라 또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모바일택배 이런 게 너무 활성화되면서 상가까지도 다 죽은 동네가 됐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부산은 경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 어찌 보면 조정지역에 대해서 미세조정을 좀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지금 조정지역을 우리가 정할 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을 정할 때 행정단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금 HUG를 통해서 전세자금, 전세를 뽑아 갈 때 집주인이 안 주면 못 뽑아 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개월까지 해서 저렇게 확대한 것은 참 잘 하셨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보증보험이요.

○박재호 위원 그리고 그 법도 지금 다세대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집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기를 당하는 이런 문제도 입법으로 보완을 한번 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20년 전에 이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면서 지방교부금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지방정부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서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고 아까 지방자치……

○박재호 위원 장관님, 제가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재작년에 도시 미집행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비롯해서 부산시에, 그때 당시는 부산시가 지금 시장은 아니지만 과장들이 너무 바뀌어서요 그 예산을 모아 놓은 돈이 한 푼도 없을 정도로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모든 지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바로 닥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통로를 만들었고 서울만 지방채 이자의 25%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서울은 좀 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광역시나 도 지역은 이자의 7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따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채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재정을 그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더 많은 지역의 공원을 확보하는 정도로 굉장히 지방자치단체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섭섭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견 땅값도 비싸고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다른 광역시나 도 지역은 이렇게 획기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섭섭해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박재호 위원 장관님, 제가 듣는 것하고 달라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자체에 돈이 없는데 만약에 부채를 내면, 지방채를 내게 되면 그 지방채 비율이 올라가서 나중에 아무 사업도 못 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 까지도 행사부하고 다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연수구를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시 20분에 송도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예요. 줄이 한 100m쯤 서 있는데, 이것 M버스 하나 기다리려고 하다가 놓치게 되면, 차량 배차 간격이 있기 때문에 두세 번 놓치면 이 자리에서 서서 기다리는 것만 40분~1시간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잘 지어 놓은 송도 국제도시가 서울과의 교통 연계가 얼마나 잘 안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GTX-B노선이 이제 건설이 되면 지금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게 86분이 걸리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민경욱 위원 86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현재?

○민경욱 위원 현재 여러 교통수단을 통해서,

전철로 간다고 해도 86분이 걸리는데 GTX-B노선이 건설이 되게 되면 27분이 걸리지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교통 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GTX-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올려놓기 위해서 3만 154명, 정권이 바뀐 다음에 혹시나 해서 서명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려놨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기재부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기재부 담당 과장, 고위급 등이 저한테 말을 해 주셨으니까 GTX-B노선, 국토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대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통망 대책입니다. 9월 전에, 그러면 8월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타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되고 또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장관께서도 GTX-B노선이 2022년에 늦어져도 착공이 되고 2025년에 개통 목표가 목표한 바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민경욱 위원 그리고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GTX-B노선이 생기게 되면, 그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GTX-B노선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 어렵게 송도-여의도, 송도-잠실 간의 M버스 노선을 유치했는데 적자

가 계속되고 또 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 해서 폐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들을 서고 있는데 인천시와 협의해서 송도-여의도 또 마포·공덕 노선, 송도-잠실·삼성 노선 또 송도-사당·강남·역삼 노선 등 3개의 M버스 노선을 신청했고 대광위에서, 대광위 위원장 앉아 계시지만 심사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이 M6405 또 M6724 딱 2개밖에 없어서, 2개의 노선이 폐선돼서 2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몰리는 건데요. 하루빨리 신규 노선이 승인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줄서고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 아침 느끼는 불편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말씀하신 송도에서 공덕, 송도에서 잠실·여의도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토가 끝나면 8월경에 아마 광역버스노선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대광위 측에서는 상반기 내 버스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20%선의 적자를 정책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하반기에 M버스 준영공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저랑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시범사업, 또 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필요할 텐데 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고 그 시범사업 구간으로 이미 폐선이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도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민경욱 위원 시작되기 전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비리 관련된…… 비리 관련됐다고 그러니까 웃으시는 건가요?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래 사장님, 자리에 좀 서 주실까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알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이렇게 ‘존경하는 민 의원님’ 해서 제보

가 왔습니다. 자기의 이름까지 밝힌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제보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이강래 사장님, 어이가 없어서 아마 웃으신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일부 특정업체가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톤키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전혀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전혀 없으시나요?

임원 회의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민경욱 위원 그 작성한 것을 좀 주세요.

그런데 임원 회의를 하시면서 특정업체 설계가 진출입 시설 등에서 설계가 잘 됐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면?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민경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질문을 몇 개 할 테니까 다음에, 이 질문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후속 위원님들이 꼭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에 답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소문이 사정기관까지 감지가 돼서 평가일에 임박해 사정기관에서 혹시 이강래 사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전연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평가 주무 처장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정사업을 공정하게 하시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나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처장한테 제가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주무 처장에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직접은 아니면 ‘공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심사와 관련된 부분

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게 저희 내부의 불문을입니다.

○**민경욱 위원** 그래서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나머지 질문은 제 시간에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께서 하실 테니까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이 부분 관련해서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아니, 지금 하시지요.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대리 윤관석** 아까 민경욱 위원님이 시간관계상 질의를 몇 개 던지고 답을 뒤에 받겠다고 했는데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파주 2공구 관련된 부분은 원래 교량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으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하저터널 형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저터널로 하는 경우에 자유로 연결 부분 또 그리고 파주시 접근성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요. 1개 업체는 자유로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1개 업체는 파주의 지방도로에 연결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아무런 대안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되자마자 파주시장이 나서서 기자회견으로 이 부분을 반박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파주시의회가 이 문제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불러서 문제 제기하고 또 그리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파주시장이 저희 김천 본사에 방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저런 의혹은 저희가 심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혹들을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 결과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만 이의신청 없이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 연결 또는 파주시 접근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어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잡음은 그런 과정에 저희 내부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위원** 연결로 볼 때는 제일 불리한 조건을 가진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대안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네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 부분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것만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업체가 됐다는 뉘앙스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러니까 여기서 심사 관련된 것을 전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민경욱 위원** 심사 관련된 것 적절치 않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 부분 때문에 생겨난 혼란이고, 내부 갈등이고 어려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제 질의에 앞서 방금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짧게 한마디만 코멘트를 하면 저도 좀 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로 진출이나 파주 교통체

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된 것 자체가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평가 과정에서 뭔가 평가 위원들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특정업체하고 뭔가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관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최근 현안과 그 다음에 세입자 피해 문제를 가지고 여쭙볼 텐데요.

최근 현안, 택시 관련해서 지난 3월 9일 정말 어렵사리 여러 택시노동자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회가 공전을 너무 오래하면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반드시 택시 관련된 법들이 다 처리되어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번 주지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저는 ‘타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새로운 운송사업 서비스가 택시제도권 안에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 업계의 분위기를 저도 살펴봤더니 대체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상생안에 ‘타다’가 계속 이것을 반대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타다’가 빠질 경우 여전히 업계의 갈등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가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타다’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어렵게 만든 이 상생안이 보류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타다’에 대해서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인 판단이나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최근 검찰에서 국토부에 의견조 회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다’에 대해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묻는 것인데 저는 ‘타다’ 측이 계속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게 납득이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윤관석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제가 2013년도 박근혜정부 때 그 시행령의 개정 과정, 입법취지 양쪽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단체관광산업의 활성화 이런 취지로 개정 이유를 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다’의 형태는 전혀 다른 방식인 거지요. 소수를 태워서 또는 배회영업을 하면서 실제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법령은 당연히 입법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존 택시기사들의 입장을 보면 이분들은 기존 법체계에 순응해서 협조를 해 왔던 분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타다’가 혁신과 불법의 경계에서 결국은 불법적으로 명백히 넘어와서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 법적 판단 부분을 마냥 미룰 문제가 아니다. 저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다’가 과연 공유경제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희자원을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용하게 하고 서로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게 공유경제인데 이게 왜 공유경제입니까? 기존 택시 시장을 잠식하고 침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설령 신산업이, ‘타다’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신산업이 제도와 규제 밖에서 기존 산업을 그렇게 잠식하거나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장관님과 교통물류실에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타다’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명확하게 법적인 대응책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 박근혜정부 때의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서 대책을 분명히 수립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규제개혁 틀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타다’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하고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실제 양태 사이에 있어서 좀 충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타

다'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성 같은 것들은 우리 택시가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다'를 택시의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타다'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 같은 것들을 우리 택시 안에 담아내고 또 이 제도권 안에 있으므로 해 가지고 같등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다수의 관련되신 분들이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에서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내서 모든 영역들이 함께 새로운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출퇴근 시'라고 하는 2013년도 시행령이 모호하면서 지난번에 그런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서 이번에 2시간·2시간으로 정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11~15인승까지의 승합차 알선과 관련해서도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타다'가 제도권 밖에서 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보다 명료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이후를 위해서도 맞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입자 피해 관련해서 우선 오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최근에 너무나 많은 다세대·다가구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홍근 위원 제가 그 사례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몇 가지 대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핵심은 결국 다주택 소유자가 갭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사기한 사건이고 또 중개보조원과 같은 사람들이 사기사건을 일으킨 것인데 대부분이 다 청년, 신혼부부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먼저 문제의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으려면 계약 전에 자신의 보증금이라든가 또는 배당 순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세금체납 현황이라든가 선순위 보증금 이런 게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주인이 작정하고 속이거나 정보를 제공 안 해 주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표준계약서에도 보면 국세가 미납되어 있거나 선순위 보증금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란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고 계약 시에 임대인이 세금체납 현황이라든가 선순위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 정보에 세입자한테 제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법무부·행안부다 함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또한 문제는 해당 주택 소유주의 전체 보유주택 보증금 현황을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초년생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서울의 동작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청에서 안내해 주는 행정을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에서 책자라든가 동영상 등을 통해 가지고 또는 지방 구청이나 기초단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그 피해자들이 자기가 아직은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HUG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키는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특례 확대를 저희가 추진 중에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피산 절임배추의 고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3월에 최정호 장관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6월 말쯤 되니까 장관님이 총리로 가고 후임에는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온다고 이렇게 세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들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정가에서는 또 김현미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전으로 퇴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또는 총선에 불출마하고 차기 전북지사직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가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국토교통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주택가격, 3기 신도시 문제 이렇게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국토부 공무원분들도 좀 들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여기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 거취는 일단 임명권자께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박덕흠 위원 그러면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장관님 생각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가장 우선되는 것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문제, 장관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수의 신도시 주민들께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음성파일 좀 틀어 주세요.

(12시15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2시17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이게 5월 23일 날 신도시 문제 토론회에서 주민이 이렇게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여러 상황은 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첫 번째로 주택가격 흐름입니다.

지금 PPT를 보면 신도시 발표 후에 강남지역 서초·강남·송파는 오르고 일산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반응입니다.

PPT 보시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3기 덕분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장관님께 고마워하고 있다는 그런 댓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세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님 나오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박덕흠 위원 변창흠 사장님, 도시행정 전문가이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그쪽을 전공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누구보다 더 정확한 내용으로 아마 3월 초에 기고문을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계속 써 와서 언제 건지 제가……

○박덕흠 위원 3월 초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량은 모두 예년보다 많았다. 두 번째,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맞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내용을 썼는가,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 통합개발에는 영향이 없는가요, 주택가격이 상승한 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그것보다는 아마 심리적인 요소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서울 주택가격은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서 많이 올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사장님,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져야만 공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서울 시내에서는, 시내만 놓고 보면 기성 시가지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만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박덕흠 위원 지금 여기 도표 보시면 어떻게 됐든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오히려 서울시 집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접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서 기타 여러 불리한 상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계속 추진하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주택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 기조는 2022년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이후의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2023년 이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점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택 자가 보유율은 60% 정도인데 수도권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집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 30만 호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3기 신도시 문제는 강남 집

값은 잡지 못한 채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더 심화시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인구와 도시 규모의 팽창만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농어촌 인구가 정말 감소가 많이 돼서 소멸 군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 문제에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전면 취소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기 신도시의 교통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9·13 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을 같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부의 움직임도 아마 이번 주쯤에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주택 수의 증가가 더 곡선이 빠릅니다. 이것은 이유가 가구당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1~2인 가구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주택은 상당 기간 동안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박덕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장관님, 지금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덕흠 위원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 공급이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전 정부보다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자가주택 점유율이 50%가 채 되지 않고요.

○박덕흠 위원 그러다 보면 농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최저주거기준에 살고

있는 사람도 6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1~2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 그래프하고 주택공급 그래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도로공사사장님 잠깐.

이건 현안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방문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서면답변이 안 왔어요. 사장님, 그래서 서면답변서를 보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뭐에 관한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저희들이 먼저번에 도로공사에 방문해서 한국당 위원님들이 질의서를……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ex-cafe 관련된 부분입니까?

○박덕흠 위원 아니, 질의서를 드렸잖아요, ex-cafe 하고……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ex-cafe 관련된 부분입니까?

○박덕흠 위원 그 부분의 질의서를 봐 주시면……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거기에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하면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다 입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사장님, 수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드렸으면 답변서를 주셔야지요. 만약 답변할 게 없다면 답변할 게 없다라고 보내 주셔야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희는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날 바로 고발하신 걸 보고 서면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수사에 대응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덕흠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하시지요?

○박덕흠 위원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사장님, 지금 박덕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 하실지라도 수사 중이라는 내용만이라도 박덕흠 위원에게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도로공사에서 위원님들께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서형수 위원 금년에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3조 8000억, 대상 가구가 334만 가구입니다. 우리 전체 가구의 한 20%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저소득층들한테 세금으로 다시 환급해 주는데요, 그러면 334만 가구가 3조 8000억 같으면 해당 가구 같으면 연 110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우리가 보면요.

문제는 이 대상에 대한 요건에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총재산, 순재산이 2억을 넘으면 이 대상에서 제외되게 지금 현재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가주택 보유 가구면 아예 해당이 안 되겠지요, 2억이 보통 넘을 테니까. 수도권은 전세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주택금융 장려해서 전세자금을 지금 현재 대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세 대출을 1억 8000 받아서 2억에 전세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돈이 많아서 월세 500만 원에 사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금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바로 닥쳐올 텐데요. 이런 실제적으로 자가 보유해 사시거나 전세 사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해 기재위에 있을 때 이것을 좀 보완하자 해서 법안까지 내놨는데요. 빨리 기재위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대상자, 특히 전세 사는 것 때문에 대상 제외된 이런 분들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기재부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것 바로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제가 따로 천분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체 대상 토지 총 면적이 9만 5000km²이기 때문에 천분위 같으면 한 95km² 단위로, 천분위로 쪼개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우선 지금 사유지하고 국공유지 비율을 보니까 면적 기준으로 하면 사유지가 70%, 국공유지가 한 30% 정도 되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니까 전체 5519조 중에서 사유지가 4500조, 국공유지가 1019조이기 때문에 약 81% 대 18.5%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이것은 면적 기준입니다—우리나라는 국공유지가 30% 정도 되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는 50%가 넘는 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아까 얘기했던 공시지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면적이 굉장히 적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글썽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것이 지금 공시지가액의 분포, 편중입니다. 아까 천분위를 해서 제일 상위…… 그러니까 천분위의 0.1%가, 아까 전체 9만 5000km² 중에서 95km²가 차지하는 가액을 보니까 980조 전체의 17.8%입니다, 0.1%가 상위 1%는 보니까 오십이점 하니까 1%가 절반이 넘어요. 1%가 전체 우리 토지 면적의 절반이 넘고 10% 하니까 90%가 됩니다. 그런데 하위 60%는 다 합쳐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주택 가격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물론 반론이 나올 수 있겠지요. 실제 자연적인 여건 때문에 개발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70%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위 30%만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도 역시 상위 1%가 전체의 32% 정도, 3분의 1이 상위 1%입니다, 70% 제외한 30%만 하더라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 남은 60%가 한 6.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런 것이 결국은 그 토지 자체의 자연적 여건이나 개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토 정책이나 도시 정책에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차별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때문에 사실 혜택을 보는 층과 거기에 부당함을 갖는 층들에 대한 고려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선은 이 국토계획 때문에, 도시계획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나오고, 최근에 토지 수용에도 조금씩 강화하는 그런 쪽은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상위층의 이득들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 사회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담을 줄이는 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지 평가액을 국토부에서 내는 공시지가하고…… 매년 한국은행에서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토지가액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제가 보니까 국민대차대조표에서의 토지가액이 2019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것을 보면 한국은행은 한 7500조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토지 공시지가는 한 5000조이기 때문에 한 68.5%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지난 2015년부터 쭉 살펴봐도 정말 희한할 정도로 68%로 똑같이 갑니다. 지금 공시지가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질적인 토지자산 가격의 한 68.5% 정도에 좀 못 미치거든요. 물론 한국은행에서 파악하는 토지는 한 10만km²이고 국토부는 한 9만 5000km²이니까 한 5% 정도 빠집니다, 하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고 결국은 공시지가가 실질적인 토지가액 자체에 상당히 못 미친다 이렇게 되는데 현실화가 우선 필요하겠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5098조에서 금년에는 5519조 같으면 연간 421조가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작년 한 해에 저희들이 2000만 근로자들이 있는데 피용자보수가 한 890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 570만 사업자들의 전체적인 영업잉여가 500조가 안 되거든요. 총 사업에서는 영업잉여가 한 500조도 안 되는데 보면 단순한 토지, 아까 말한 주택분을 제외하고 토지만 가지고 연간 공시지가액 기준으로 해서 421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현된 이익은 아니지요. 그렇

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보유 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아까 말한 우리 국토 정책이나 토지 정책 때문에 이익을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의 일정한 정도의 요구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자료조사를 너무 잘 하셔서 가지고……

어쨌든 저희 부는 공시지가가 시가에 대한 반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지난해에 작업을 쪽했었고요. 그래서 값이 많이 뛰었거나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영률이 떨어지는 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반영률을 공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일을 했었고 앞으로 그런 기조를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종부세 문제도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해서 전부 다 다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서형수 위원님께서 다양한 토지 평가 조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에 SOC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일부 들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느 정도고, 전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송석준 위원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지요?

금년 우리 국가 전체 예산 중에 SOC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5.8%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는 19.8%입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아니요, 금년도 본예산에서.

○송석준 위원 우리 국가예산 중에 SOC 예산이 그렇게 비중이 높던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본예산에서는 19.8%, 국토부 SOC는 15.8%입니다.

○송석준 위원 박선호 차관님, 맞아요?

국가예산 중에 비중이 그렇게 높았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4.2%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액수를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송석준 위원 장관님, 지금 개념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SOC 예산이 당초 장관님 처음 취임하실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당초 생각했던 거랑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SOC 예산과 SOC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2년 지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타면제 사업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당초하고는 생각이 달라지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옛날에도……

○송석준 위원 이 정부 들어서 매년 SOC 예산 감축해 왔잖아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올해부터 올랐는데요, 작년에.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왜 올린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장관님,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언론에서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필요했고……

제가 묻잖아요. 당초에 SOC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는 아주 토건족들의 배불리기 하는 나쁜 예산으로만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더니 요즘 와서 갑자기 예타 없이도 예산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름도 없는 생활형 SOC 얘기 막 붙여 가면서 요즘 SOC가 엄청 무슨 만능특효약처럼 불리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짧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교통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과거에 충분히 되지 않았던 수도권 교통 문제라든가 지역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신 것을 본인 스스로도 느껴지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번에 강남 집값 잡겠다고 강력한 대책들 많이 내셨잖아요. 강력한 거래규제 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얘기하지 어느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창릉지구, 거기 지구 지정했잖아요. 그 후유증과 예상치 못했던 후폭풍이 굉장히 세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송석준 위원** 굉장히 많지요.

뭔가 처방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1·2기 신도시 대책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1·2·3기 모두를 망라하는 수도권 교통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대책을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 하시지만 이 정부 되고 2년 지났잖아요. 이제 2년 좀 지나면 금방 정부 끝납니다. 막연한 대책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핀셋 정책, 꼭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갖고 있는 문제가 해

결되지도 않았는데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중간에 서울하고 그린벨트, 기존 2기 신도시 중간에 덜컥 이렇게 지정해 놓고 나니까 기존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음성으로만 보내 주셨지만 현장 화면으로 보면 정말 더 대단했습니다. 그쪽 일산 지역 또 새로운정지구 지역 입주민들의 원성 대단합니다. 그것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단순히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문제인 정부 들어서 펼쳐지는 각종 정책의 현장은 정말 여기저기서 국민들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창릉지구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지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여파로 뒷골목에 교통 받는 자영업자들, 시설농들 지금 정말 말도 못해요. 또 우리 중소기업들 하반기 되면 대량 해직을 하든가 아니면 기업을 닫든가, 심각하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요.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건 그러면 또 나중에 한번……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이번에 반포동의 공사 현장—건물 철거 현장—에서 그게 갑자기 붕괴해서 지나가던 차량, 예비신부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 제천에서 화재참사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세월호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한 문제인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가 도심 한복판에서 그리고 우리 주거 공간 바로 인근에서 이렇게 발생합니다. 아직도 안전에 대한 인식 정말 부족하다는 것 인식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사람, 조직, 시설 그리고 제도, 환경 모든 게 조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국토부에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지방청에 안전관리 조직도 늘렸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사람만 늘려 놓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안 됐대요. 그분들 출장 여비 있어야 이번에 이런 반포동 건설 현장 같은 데도 안전점검도 나갈 수 있고 또 지방공무원들한테 자극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한 8억 정도 여비, 도로에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여비조차도 부족해 갖고 지금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화로. 그것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런 것 시정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위원장 박순자 예, 1분 더 쓰세요.

○송석준 위원 엇그제, 지난 7월 4일 날 우리 항공안전에 관해서 정책토론회 한 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들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 국토부 간부들이 아닌 국토부 노동조합과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연합회에서 항공안전에 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 같이 개최를 했어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같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제사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관제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항공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장관님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층간소음에 관해서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 현장점검도 하고 또 제가, 릴레이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최근 5년간에도 17명이 목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옳고 많은 이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장관님의 적극적인 열의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장관님의 각오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의 방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을 저희들이 좀 더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우선 국토위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등 처리해야 될 안전과 민생 관련 현안들이 102일간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가 이 밀린 숙제를 이제부터라도 성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발생한 잠원동 건축물 붕괴 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3층이 아직 철거되지도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지하 1층 천장을 철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가 철거를 해 버리면 위가 무너지는 건 당연지사거든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도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감리책임자가 상주해 있어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물관리법안은 철거 현장에 감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데 사실 이 법안이 좀 더 일찍 시행이 됐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잠원동 건축물 붕괴 사고는 철저한 감리 실패라고 볼 수 있고 또 현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준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감리는 각종 건축물 건설현장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눈입니다. 본 위원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야가 바로 감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임종성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건축물 관리 방안에 대한 시행령과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 이번 잠원동 사고를 참고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준비

되는 대로 본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리고 드론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드론 관리와 규제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안전법상 국내에서 발생한 드론 사고는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토부 보고에 따른 드론 사고건수는 20건 정도인데 드론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에서는 지난 3년간 250건이 넘는 보험금 청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즉, 드론 사고에 대해서 국토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드론공원을 운영 중인 서울시에서 지난 3년간 20여 건의 드론 사고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에다가 단 1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임종성 위원 앞으로 드론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장관께서는 조기에 사고 보고체계를 좀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일단 공공분야 관련 드론부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사고에 대한 실태 파악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두 번째로 공공기관, 방금 말씀해 주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드론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현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사업용 드론과는 달리 1760대의 드론을 보유한 공공기관들의 보험 가입률은 지난 1월 말 기준 단 8%에 불과합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드론의 보험 가입률이 0%인 것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보험에 들 리가 만무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드론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세 번째로 안티 드론에 관한 문제에 국토부의 대응이 매우 미온적이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얼마 전 제주의 정석비행장, 지난해 영국의 개트윅과 히드로 공항에서는 불법 비행 드론이 나타나서 운항 중단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불법 비행 드론을 격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파결함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현행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전파결함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연방법상 항공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무인항공기의 무단 운영을 탐지·경감하는 체계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장관님, 각종 테러 위협은 물론 항공안전을 위해서라도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한데 국토부는 외부에서 논란이 일자 이제야 관계부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관께서 조속히 안티 드론 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전파법과 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 제도 정비안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박덕흠 간사와 사회교대)

○임종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도 이때 지적을 했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초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간 명칭 개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네 차례 회의를 거치고 또 명칭 개정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송파하고 노원, 강동 등 서울시 3개 구청이 동의함에 따라 지난 6월 11일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했거든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명칭 개정 에 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내 14개 시군 또 경기도의회와 13개 시의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얼마나 드릴까요?

○임종성 위원 30초.

○위원장대리 박덕흠 1분 드릴게요.

○임종성 위원 경기도의회와 13개 시의회가 함께하고 있고 서울시와 송파·노원·강동 등 3개 구청에서 통 크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향후 국토부의 도로정책 심의를 거쳐서 이르면 9월 말이라도 명칭 변경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살리고 화합하는 자치분권 규율을 위해서 장관님께서 이 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말씀하신 대로 명칭 변경을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표지판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추계라든가 이것의 분담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할 연구용역이 필요한데요. 연구용역을 8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대전 중구 출신 이은권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또 다시 여쭙보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일자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의 타 시도로 인구 유출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장관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지난번에 충남도지사님하고 대전시장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은권 위원 감사합니다.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행복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10곳을 조성·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제외하고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배제된 이유도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된 혁신도시 도시별 배치에 대해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고 인근에 세종시가 건설됐다는 이유로 배제가 됐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원래 공공기관이 가는 데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무산됨으로써……

○이은권 위원 그런데 실상은 세종시 건설로 인해서 대전과 충남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빨대효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를 보더라도 대전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으로 이주한 인구가 대전 시민이 10만 7000명입니다. 충남 인구는 13만 7000명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가 30만 3000명입니다. 그렇다면 대전과 충남에서 거의가 세종시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전과 충남에서의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덕특구로 인해서 실제 지역인재 채용은 굉장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정부대전청사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고 소외돼서 타 시도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도 장관님께서 좀 알아주시고.

지난해 1월에 개정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하고 지역우수인재를 2022년까지 30%까지 채용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2만 6000명의 졸업생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했지만 여기는 혁신도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고 취준생들이 고초를 많이 겪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개정 작업에 장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혁신도시를 지정해 달라 이런 요구가 대전·충남에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어야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혁신도시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요. 그런 것을 거쳐서 혁신도시를 이전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전·충남 지역도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인재 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혁신도시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을 개정하는 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또 권역을 6대 권역으로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법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권 위원 그렇다면 내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아마 이 문제가 다루어질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이것이 법에 담아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더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은권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먼것번에 발표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간에 이런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아직은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유치 경쟁 단계까지 가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권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북이라든지 광주·전남·충남·대전·강원도 등 많은 지자체들이 국회를 비롯해서 청와대, 국토부에도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아마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이 문제를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이런 부분을…… 내년이 총선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총선과 연계해서 오해가 없도록 균형 잡힌 감각으로 우리 국토부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은권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과 충남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가야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데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지역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선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합의를 모으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권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토부에서도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포함돼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김현미 장관님, 내년에 총선 출마를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총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제가 언제까지 장관을 할지에 대해서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호 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전라북도지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크게는 총리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후임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개각 얘기 나오면서 그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모릅니다.

○이용호 위원 모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용호 위원 그러면 임명권자의 뜻대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용호 위원 내년 출마 생각은 있지만 뜻에 따르겠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용호 위원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출마를 해야지요.
 ○이용호 위원 하고 싶지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용호 위원 장관의 거취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되면 국정을 챙기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또 ‘타다’의 문제, 신도시 3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장관께서 지금 하고 싶은데 어쩔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마음은 콩밭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쭙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전념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저기 도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5월 27일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간다, 그래서 바닥을 넘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올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마이너스 0.1 정도가 몇 년 만에 하락했는데 최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간의 이상 움직임이 있어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 여기에 맞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 준비한 것이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보니까……
 다음 PPT 넘겨보세요.
 고가주택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또 물린다, 재건축 연한을 강화한다. 조금 전에 또 오전에 답변에서 민간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용호 위원 그런데 고가주택 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지금 9억 이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민간분양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역시 건설

비용을 추가로 건설사가 조달하게 되어서 결국은 또 분양가에 부담이 되면, 이것도 또한 나중에 전가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 위축을 촉구시키는 그런 규제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사업자들을 지금 풀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이 제도적인 혜택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면 결국은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달 의향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에도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혜택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집을 사서 임대로 등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혜택을 줄였고요. 또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을 다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저는 줄곧 임대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임대소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워크레인, 얼마 전에 시위가 있었지요, 파업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용호 위원 왜 파업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가장 큰 것은 양대 노총에서 무인 타워크레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국토부의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이유가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국토부가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 이행력 강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용호 위원 거기의 핵심을 보면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은 7.9년에서 39.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8년 정도 길게는 40년 가까이. 그런데 국토부의 시행령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년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타워크레인 업계에서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런데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게 20년이 되면 못 쓰게 하는 게 아

나라 20년이 된 이후에 점검을 해서 안전하면 계속 쓰게 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정비해서 하거나 못 쓰게 하거나 이런 건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용호 위원 장관님, 지금 40년짜리를 20년으로 당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20년이라고 보장해 주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이 7.9년인 경우는 20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12년을 더. 이런 시행령이 어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이용호 위원 대책……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8년 정도 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년 쓰도록 시행령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다시 제도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구연한이 짧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다시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보세요.

철저히 보시고 또 그 이후에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잘 안 돼요. 국토부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전문가를 불러서 한다’ ‘처음에 파업할 때는 이런저런 약속 해 놓고 그대로 잘 안 지킨다’ 저한테 그렇게 들어옵니다. 장관께서 좀 직접 챙겨보셔서 또 다시 그런 파업이 안 생기도록…… 저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데 장관님이 좀 직접 챙겨보세요, 콩밭에 마음 가 계시지 말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진에어, 예전에 물컵 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째 국토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과잉규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제재를 계속 언제까지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작년에 그 사건이 났을 때 진에어 측에서 경영혁신에 대해서 경영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자신들의 경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외부의 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용호 위원 시간을 조금……

○위원장대리 박덕흠 예, 1분만 더 드릴게요.

○이용호 위원 2분만 주시면 추가질의는 안 할게요.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예, 2분이요.

○이용호 위원 진에어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한 1년 넘게 받고 있는데, 올해 3월에 보면 LCC 에어프레미아라고 하는 항공사가 항공면허를 발급받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용호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대표를 바꿨어요. 그런데 원래 이것 면허를 받을 때는 대표 이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왜 두 달 만에 대표가 사임을 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뒤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감사로 있던 사람이 청와대, 여러 가지 정부기관에 투서를 해서 ‘투기꾼들이 항공사를 장악을 했다’ 그런 탄원서가 나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항공 면허, 그러니까 변경면허를 신청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용호 위원 저는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또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에어도 물컵 사건 하나로 이렇게 엄중한 그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직 비행기도 뜨기 전부터 자기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경면허에 대해서 적어도 안전, 그리고 처음에 이 업체가 신청한 계획서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나중에 변경면허 해 주고 나면 화근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저는 장관께서 좀 잘 들여다보시고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법령에 따라서 대표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 여부, 면허기준 미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장관님께서 정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나고 나서 또 그냥 사후약방문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관석 간사님 질의 있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노선버스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됩니다. 노선버스 300인 이상 사업장에 7월 1일부터 52시간제 근로가 적용이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관석 위원 지난 5월 15일 날도 그때 전후해서 버스 대란·파업 운운해 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장관님과 부처 또 지자체 여러 군데서 노력을 해서 일단 고비는 넘겼는데 앞으로가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제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어서 상징성이 매우 큰데 문제는 아직까지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경기도 같은데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관석 위원 물론 그 당시에 거기도 앞으로 준공영제로 진행하기로 해서 일정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도가 실질화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관석 위원 경기도가 보니까 주 52시간 적용되는 300인 사업장이 전국의 31개 중에 22개가 있어서 71% 적용이 되는데 지난번 같은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일단 3개월의 제도기간을 두고 지금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 간의 임금 인상이 아직, 결정은 되었지만 임금 인상이 확정이 되려면 8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 임금에 따라서…… 아니, 요금.

○윤관석 위원 요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요금 인상이 8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마 노사 간에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또 노사 양측과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이 되기 전까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요금 인상 절차 이행 소요기간이 통상 4, 5개월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걸 최대한 단축해서 또다시 이런 대란이나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체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실행되기 때문에 더욱더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사업체별 노선별 요금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준공영제, 지난번에 문제 풀 때도 얘기가 나와서 합의가 일정하게 됐습니다마는 준공영제가 확실하게 도입이 되고 또 노선별 입찰제 도입 등 종합적인 검토·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연구원하고 경기연구원이 함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생활 SOC 사업이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포장보수 사업비가 355억인데 이 중에 일부 구간이 중온아스팔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온아스팔트는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맞습니다.

○윤관석 위원 중온아스팔트 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중온아스팔트 105억을 시범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아는데 규모는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70km 정도 됩니다.

○**윤관석 위원** 70km, 105억 정도인데 제 견해는 이것보다 2배·3배 정도 늘려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국회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문제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도 제가 국토교통위원이 되었을 때 도로공사 첫 업무보고에서 톨게이트 외주인력을 얘기했습니다, 16년도에.

그런데 당시 좀 소극적이었는데 17년도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18년 9월에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노사전협의회를 통해서, 노조와 사용자 측과 전문가 협의회지요.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해서 4개 항을 합의했지요? 맞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동의는 했지만 또 일부는 비동의자도 있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민주노총 쪽하고 그리고 톨게이트 노조 일부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 규모가 아마 지금 현재 6500명 중에 5000명은 동의되고 한 1500명 안 됐다, 이게 수치가 맞는 건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1460명이 비동의 상태입니다.

○**윤관석 위원** 1460명, 1500명 정도 되네요.

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차액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톨게이트 일부를 점거하고 그래 갖고 국민들의 걱정이 큼니다.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지 그 의지나 또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희 수납원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자회사로 추진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저희는 자회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9월 5일 날 합의과정을 통해서 급여를 30% 이상 올리고 또 정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사실 다른 어떤 자회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해하는 게 고용 불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윤관석 위원** 말씀하신 합의내용, 작년 18년 9월에 한 네 가지 조항이 보니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균임금 30% 올리고 정년 1년 연장하고 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추진하여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 이게 합의가 됐는데 이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일부 좀 있는데 그것은 정당성은 문제 없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노총 계열에서 9월 5일 날 합의 이후에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효력을 인정받은 거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어떻든 현재 비동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집회와 시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은, 근로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잘 대처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을 하면서 신혼부부 대상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용자로 한 1500억 또 출자하는 것으로 1400억 주택도시기금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가구주택을 한 2133호 추가 매입한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출산율이 0.97까지 떨어졌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낮은 출산율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당연한 예산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에 미입주가구가 43%에 달한다 이런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뭔가 하고 보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신혼집, 이것의 79%가 아파트거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14.8%,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이 3.6%에 불과한데, 이게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호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입주주택이 주로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 실제 수요와 잘 맞지를 않는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율이 올 상반기에 5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 이사를 나가야 되는 시간 또 집을 수리하는 시간 이런 데 보통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혼부부들 수요에 맞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1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매입임대2라고 그래 가지고 규모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액수도 좀 올리고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집들을 저희들이 매입임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을 수리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시차들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호중 위원** 이게 대도시권 같은 경우가 특히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14호를 매입을 했는데 614호가 전부 빌라였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호중 위원** 올해부터는 바꾸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호중 위원** 막연히 이렇게 좀 늘려 보자고 하는 것보다 매입임대사업을 시작한 지도 좀 됐고 물량도 쌓였으니까 주거 형태별로 이룰때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주거 형태와 출산율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는 주거 형태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지난 5일인가요? 5일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대책을 발표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호중 위원** 이것이 앞으로 거시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또 신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집값 상승을 막는 대책을 구상하신 것은 시의 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분양가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여서 또 그것을 의무화해서 분양가 심사가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국토부장관께서도 예를 든 전주시 사례 여기도 그냥 회의록을 공개한 정도가 아니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잘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심사위원회 개편을 할 때 공공부문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기존에 2명에서 3명으로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윤호중 위원** 아, 늘렸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남은 시간에 저희 지역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하긴 한데요.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왕숙신도시가 가장 큰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왕숙신도시뿐만 아니라 이 주변, 그러니까 경기 동북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왕숙신도시가 6만 6000가구, 계획인구가 한 17만 정도가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인근의 개발사업을 전부 합치면 여기가 한 38만 정도 인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 지역에 관계되는 조용천 위원님이 마침 국토위로 오셨고 또 박홍근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1분 더 드릴까요?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끝나셨습니까?

○**윤호중 위원** 다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간담회를 이미 다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12월 중에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윤호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덕흠**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이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위원** 김현미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도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규희 위원** 충남의 세종시 때문에 충남이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양 측면이 다 있겠지

요.

○**이규희 위원** 양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인구 유출도 많고요. 경제적·재정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내포 신도시가 충남도청 소재지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규희 위원** 10만 인구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2만 5000이랍니다. 더 이상 인구유입이 없어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고요.

내포 신도시는 현재 도시인프라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잘 갖춰져 있어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하면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추가 비용이 절약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계속 우선 이전할 공공기관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이 되고 그래야 신도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충남도민의 열망이 있고 또 이러한 충남 신도시 지정이 국가균형발전과 그런 중요한 정책적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라……

먼저 지정을 하고 추가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현재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한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희 위원** 명분도 그렇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고 충남도민의 여망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충남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충남도지사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도지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규희 위원** 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H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변창흠입니다.

○**이규희 위원**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위대한 국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라다

운 나라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셨고 저는 이것을 계기로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한번 도약해보자는 원대한 국가적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 옳다고 우기지 않는 민주주의 체대로 해야 되고요. 공정한 경제로 중소기업을 살려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쓰레기 천국의 나라가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테러, 쓰레기통에 폭탄을 테러리스트들이 돌지 모른다 이런 핑계로 없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 또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에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100m나 200m를 들고 가면 쓰레기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그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 좀 각성을 해서 새롭게 쓰레기통 설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LH에서 신도시도 만들고 어떤 택지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하실 때 물론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세계에서 아주 가장 멋진 조각과 기능이 통합된 쓰레기통을 만든다든지 돌로 세계에서 아주 가장 멋진 쓰레기통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을 선도하는 그런 LH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LH는 돈을 남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도시 개발을 할 때 적자 개발을 해야 그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거지. 세종시가 생기면서 저는 정말 감동적인 꿈을 가졌었습니다. 아파트가 없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봐도 손색이 없는 전원도시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지금 아파트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후진국 스타일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문제 선도적으로 세계 1등 국

가에 걸맞게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쓰레기 치우는 문제는 당연히 지자체와 상의를 해야 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여러 가지 중재를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저는 모든 삶의 질이 다 충족되어도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완전히 온전하게 행복한 국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문제는 지금 심각하고 많은 예산을 즉시 투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주차장 혁명'이라고 제 책에도 썼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나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서 좀 안 일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새로운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을 할 때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공원을 새로 조성할 때 미리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흙을 덮어서 공원 조성을 하면 나중에 그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파내서, 이게 조경도 조성이 다 돼 있는데 파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흙을 덮어서 이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추가질의 없으니까 2분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2분?

○이규희 위원 예.

그 점도 깊이 생각해서 가지고 애국적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 1등 국가를 만들기 위한 LH의 선도적인 실천을 각별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셔서 LH로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화장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1등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LH가 같이 혹시 역할 분담이나 또는 디자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위주의 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17개 특화과제를 발주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가령 스마트시티라든지 또는 에너지제로 주택이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고밀형 아파트라든지 또는 사회주택이라든지 이

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기존의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3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희 위원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고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5년 뒤에 분양전환 하는 게 있고 10년 뒤에 분양전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뒤 분양·10년 뒤 분양이라는 제도를 없애서 그냥 영구임대나 아니면 분양이나 이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일단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5년 후 분양과 10년 후 분양의 분양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어떻게 그 주변의 주택이 오르는 게 공공임대에 입주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국가 잘못이란 말입니다. 이 국가 잘못을 그런 서민의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전가를 하는 것이 저는 과연 합리적이나? 먼저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또 로또가 되는 건데 그걸 허용해야 되는 거냐의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서민도 로또를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어떤 의미에서 국가정책의 실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주민의 입장에서 분양가 가격을 고민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앞으로는 10년 임대 후 분양 이런 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임대주택의 스톡(stock)이 시간이 갈수록 쌓여야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건데 10년 후 분양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한계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계산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10년 전에 입주를 할 때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서로 한 것입니다. 이건 사회적자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계약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은 계약의 원칙

에 따라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흔드는 것은 정부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10년 임대 같은 경우에 이 분양가를 산정할 때에도 저희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감정가하고 시세하고는 또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대로 분양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로 분양을 받더라도 시세차익이 상당 부분 발생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분양받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건이 맞는다면 4년 또 8년 동안 임대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주고 또 이 분양금액을 할부로라든가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들을 두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박덕흠 이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장관님,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장관하고 동남권 부·울·경 3개 단체장 합의문을 발표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李憲昇 위원 그 주요 내용은 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검토를 받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李憲昇 위원 현재까지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우리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원칙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부·울·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내겠다 이게 저희 부의 입장입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공항 관련 분야에서 국토부가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총리실이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총리실에서도 부처들은 부·울·경이나 저희 부처는 빠지고 전문가들

로 이 검증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그 검증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늦지 않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李憲昇** 위원 얼마로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저는……

○**李憲昇** 위원 한없이 기다립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요, 우리 국토부에서는 좀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憲昇** 위원 그 빠리는…… 그러면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최대한’ 하지 마시고 3개월이면 3개월, 올해 안이면 올해 안 그런 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李憲昇** 위원 제 생각이 어떤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 3개월이나 연내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李憲昇**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의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아니 아니, 국토부에서 김해신공항 관련해서 올해 예산 얼마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한 82억 정도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83억 원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83억 정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李憲昇** 위원 그러면 국무총리실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예산집행이 안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민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고시하는 것이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는 내역입니다.

○**李憲昇** 위원 그 당시 6월 20일 합의문까지 작성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회동이 사전에 준비된 회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작스럽게 만나

게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오래 얘기했습니다. 부·울·경에서 계속 우리 국토부 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검증단하고 장관님은 몇 번 만나셨어요, 국토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만난 건 아니요 우리 항공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났습니다.

○**李憲昇** 위원 몇 번 만났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굉장히 여러 번 만났습니다.

○**李憲昇** 위원 실장이나 누구 답해 보세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권용복** 항공실장입니다.

○**李憲昇** 위원 몇 번 만났어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권용복** 5월 28일경에 한 번 만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6월 20일 날도 같이 뵈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아니, 두 번 만나 가지고 이 중요한 것을 총리실로 넘기겠다 그렇게 합의를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아닙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권용복** 실무진은 한 다섯 차례 만났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실무진에서는 다 동의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권용복** 동의를 여러 가지 이렇게,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어떤 소음이나 안전, 관문성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계속 서로 좁히려고 했는데 이견이 해소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李憲昇**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무적으로…… 실무진 회의를 자체적으로 여러 번 하셨어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권용복** 예, 그렇습니다. 다섯 번 정도 만났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만나고 난 뒤에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하셨냐고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됩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총리실로 넘기는 데 동의를 한 겁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권용복** 저희 자체적으로 볼 때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데 문제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서로의 갈등은 서로 많이 회의를 했는

데 좁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제가 물을 때마다 국토부에서는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권용복**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입장 변화가 생겼길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거를 총리실로 이관을 해서 검증은 받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답변드릴까요?

○**李憲昇**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고시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들도 밟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한 다든가 또 건축 같은 경우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가 없이는 원만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검토위원회를 거치기로 한 것입니다.

○**李憲昇** 위원 장관님, 합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미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李憲昇** 위원 그렇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시·도지사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 결정이 바뀌고 미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도 원칙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李憲昇** 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이라든가 그린벨트를 사용하는 데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李憲昇** 위원 장관님,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불만 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정치권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기사가 이상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일부 작은 정책을 검토하는 사례는 봤지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 같은 큰 정책까지 일관성을 깨고 재검토하는 것은 정말 담당 부처 공무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도 그동안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없고 일정대로 쪽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김해신공항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거라면 결국 김해신공항 추진해 온 국토부 정책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건 아닙니다.

○**李憲昇**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정말 국토부장관님, 차관님, 항공정책실장, 기조실장 전부 사표를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해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그랬는데 그러면 입지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부산 지역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안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하는 기술적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항공실 직원들은 1년 넘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자꾸 장관님께서 합의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합의가 되었던 것을 합의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합의가 아니요,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합의가 아니고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 시기 시기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하면 국가사업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 반복되고 진도가 안 나가도 그러면 국가기관으로서, 중앙기관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고 저희가 이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장관님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김해신공항 건설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제가 여러 번 그 후에도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李憲昇 위원**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그 입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변함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李憲昇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이현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삼 위원** 장관님, 3기 신도시는 추진하시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좋은 평가를 받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1기·2기 신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거기에 3기까지 더해지게 되면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번에 3기 신도시를 통해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2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족시설의 문제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후삼 위원** 못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불편한 국민들이 없도록 또 그렇게 잘 좀 살피셔서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SOC 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전 SOC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공동구 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추경에 3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지하시설물 문제에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용역 과정을 거치고 또 부처 간에 협의하고 이런 절차가 너무 속도가 느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여기에 장관님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연구용역을 하는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올렸는데요. 이게 좀 아직, 국회가 추경 심의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실질적인 일을 하는 데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체적인 SOC 노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매년 5조, 민간의 3조 포함해서 8조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노후 SOC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후삼 위원** 이게 국토부 사안뿐만이 아니라 환경부, 산자부, 과기부,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같이 협조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분명한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토부가 지하안전 문제 포함해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부분 포함해서 타 부처들과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 안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SOC, 노후 SOC 포함해서 장관님께서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정부에서 노후 SOC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에서 5조 그 다음에 민간에서 3조 해서 매년 8조 해서 32조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SOC 문제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

쳐 TF를 맡아서 1차관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파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당리당락 차원에서 해석을 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일각의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조금 더 책임있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빈집 문제가 요즘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최근에 무단 침입, 화재 또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빈집 관련해서 국토부 소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요, 농림부 소관의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심지어 현재 지방세법에 보면 빈집이 나대지보다 세금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굳이 빈집을 헐 이유가 없습니다. 빈집으로 놓으면 0.1%, 나대지면 0.2~0.3%, 세금이 오히려 그냥 빈집으로 놓을 때가 더 적게 내니까 집주인들이 굳이 이 빈집을 헐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별로 빈집의 정보 모니터링 또 정부 지원, 국민 정보 제공, 소유지의 자발적인 빈집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고 또한 최후 수단으로 방치 기간 2년이 넘도록 활용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빈집 실태조사도 보면 조사한 기관마다 다릅니다. 한 곳은 40만 곳, 한 곳은 120만 곳, 이렇게 좀 다른데요. 지자체랑 국토부 추정 숫자가 45만과 120만, 1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빈집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 정책 그리고 도시 정책, 균형 정책 등 관련 계획을 위한 부처 간의 협의를 보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빈집 정비에 관련해서 유인책 개발, 이에 대한 페널티 강화 등의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박덕흠 간사, 윤관석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빈집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조금 다원화되어 있다고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도 좀 잡히지 않고 이런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관리를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법을 통해서 유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양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마지막으로 장관님 전동킥보드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후삼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6만 대였는데 2020년에는 한 30만 대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사고가 2015년도에는 14회였는데 2018년에 233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관련 법 규정을 전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를 보면 다양한 규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의 문제는 국토부 소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토부가 기준을 만들어서 법 개정을 해야 거기에 입각해서 또 관련된 법들을 개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사고의 위험성 등등에 대해서 많이, 저도 얼마 전에 이것 사고가 한번 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법이 직접적으로 국토부 관련 법안은 없고요. 경찰청, 산업부, 행안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 기준 이런 것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기재부가 주관이 돼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단일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삼 위원** 경찰청에서는 주행안전 기준을 국토부가 만들어야 그래야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걸 일단 기재부 중심으로 TF가 꾸려져 있으니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이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장관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재검증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공항도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의 강서구에 있고 또 최근에 부산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입지도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리실에 검증 업무를 이관하기로 결정한 그 다음날 대구·경북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김해공항 신공항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산광역시의 건축·토목 공사 인허가 등 여러 가지 협조가 불가피한데 그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재검증에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상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도 6월 달에 밀양, 가덕도, 김해공항에서 최종 입지로 김해가 결정될 때 5개 광역단체장이 어쨌든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울·경 3개 단체장의 이의제기라고 보여지는 재검증 요구에 대해서 대구·경북광역단체장은 전혀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총리실에서 재검증 업무를 할 때 이

대구·경북 쪽도 재검증 업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리실의 검토를 받는 것은 부·울·경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음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기술적 쟁점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어디 입지를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바로 그것을 드릴 텐데, 총리실의 재검증 범위는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에 대해서 부·울·경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적정성 재논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새로운 공항 입지를 검토하는 그런 결정은 내려질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김상훈 위원** 부·울·경 검증단의 요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일관되게 열몇 차례나 반박하는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상훈 위원** 그래서 일관된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계속 견지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공항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특히 국제 관문공항은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고 보고 ADPi나 또 국토교통부가 실행한 기본계획의 소요 연수나 비용 그다음에 업무의 여러 가지 정밀성에 비추어 봤을 때 4개월 남짓 활동한 부·울·경 검증단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이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면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지금 다시 불거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송철호 시장은 ‘만약에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의 재검증이 가덕도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과정이라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민주당 소속 강서구청장도 ‘가덕도 신공항 입지가 추진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왜 가덕도 신공항인가에 대해서 오거

돈 시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의 가덕도 인근 소재 부분을 몇 개 매체에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제강이라는 오거돈 시장의 큰형님이 회장으로 있는 철강업체 이게 가덕도 인근 복단에 바로 위치하는데 거가대교의 건설공사 때 이 업체에서 소요되는 철강재 총 7만t 중에 4만 2000t을 납품한 바가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 장관은 오거돈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물류 편의성 때문에 그런 철강재가 대한제강에서 납품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그런 논리라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대로 가덕도 신공항 및 인근 영도-가덕도 해안순환도로 건설 시에는 대한제강이라는 데서 독점적으로 철강재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언론사도 있고, 그다음에 덩달아 오거돈 시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근 부동산 가치의 급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따로 검토를 한 바가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부산의 그런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철강이야 김해에 공항을 지어도 철강이 필요한 것이고 가덕도에 지어도 철강은 필요한 거니까 아마 특정 업체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좀 과도한 추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항 주변의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으로서 특별히 가치가 없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위원 예, 일부 언론사의 기사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인근 토지의 거래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덕도 신공항 입지 문제가 다시 재론화되는 것은 선거를 대비한 부산 민심 다잡기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백년대계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게 거스르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제가 장담하는데 부산 민심 조금 돌리더라도 수도권 민심을 포함한 전국 민심이 들끓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 주셨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국토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지금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울·경에서 문제 제기하는 안전의 문제라든가 소음의 문제 또 확장성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지금 상태로 관문공항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했지만 납득을 시키지 못한 데는 저희들도 역량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안을 찾아서 국무총리실에서 합의를 만들어 내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국토부도 열심히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오랜만에 국토위 회의가 열리니까 질문할 게 여러 개 있네요.

생활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아파트 관련해서 지난번에 방송기자토론인가요, 장관께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또 회의록과 심사위원 명단 이런 것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오늘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냈는데 장관 얘기하고 시행령 막상 이게 엇박자예요, 안 맞아요.

‘회의록 공개는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한다’, 될 수 있으면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국토부가. 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좀 엇박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령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저희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아마 맞춰서 만든 것 같은데요. 전주시에서도 이런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장관 말씀한 대로 투명성·전문성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지……. 과천 사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LH 변창흠 사장님 오신 지가 몇 달 되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정동영 위원** 업무 파악은 되긴 되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전국에 혁신도시 10개 있는데 정주 여건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택지 조성도 하고 인프라 건설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환경, 교통, 주차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LH가 대개 공사해서 지구별로 좀 다르지만 적게는 몇백 억에서 1000억, 2000억씩 남은 것으로 아는데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자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전북본부 같은 경우에는 공원 조성 등 이런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북본부장 같은 경우는 칭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다른 10개 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혁신도시 시즌 2에서는 1기 때 주로 이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정주 여건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다음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10개 혁신도시가 전부 신규 아파트단지인데 보면 아주 소소한 하자민원 상황이 빈발, 다수 발생해요. 그래서 건설사에 주민들이 아파트 대표자회의를 구성해서 쫓아다니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또 시청, 구청 쫓아다니다가 지치고 그런데 얼마 전에 HUG가 나서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HUG의 역할을 좀 강화하고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도시보증이 하자보증서는 끊어 주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자 시정요구를 HUG가 하게 되면 그 건설회사는 굉장히 큰 압력과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예, 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김 장관님, HUG에다가 역할과 권한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하자보증서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HUG에서 얘기하니까 금방 해결이 되

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HUG에 힘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철도공사 사장님, 차관 하시다가 가셨는데,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지금 KTX 없는 동네는 지방 소멸 위기에 몰려요. 대표적인 게 전라북도 김제시가 전에 웅근으로 불렸어요. 전국의 66개 군 중에 제일 군이다,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런데 지금 8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KTX가 안 서요. 안 서면서부터 더더욱 소외되고 있는데 호남선, 전라선 중에 서대전 돌아가는 게 하루에 두 번 내려가고 두 번 올라가든가 몇 번 그런데 우회하는 일반 선로로 가는 것 강제하고 장성 포함해서 이렇게 가면 길이 있더라고요. 김제시장님이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예, 저번에 김제시장도 만났고요.

○**정동영 위원** 만나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서 KTX 서비스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주민들이, 국민들이 좋아하잖아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SRT 문제인데요. 전라선에…… 국회 본회의가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결의안을 냈어요, SRT 서비스를 전라선에도 집어넣어라. 그런데 철도공사 사장이 몇 번 바뀌면서 그냥 우물쭈물해서 지금 3년 넘어…… 그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본회의까지 나서서 결의안을 냈는데 평창올림픽 끝나면 거기에 차량 몇 대라도 집어넣겠다는 약속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SRT 통합 얘기는 그다음 얘기이고 우선 주민을 중심에 놓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예, 그 부분 정부하고 SR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국토부하고 SRT하고 3자인데, 김 장관님 언제까지 장관하세요? 하여튼 SRT 해결 안 할 때까지는 장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KTX 역 중에 처음으로 신축 역사 중에 국제공모를 한 역이 전주역인데 제가 강조했던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들

어울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실망이 큰데 그렇더라도 끝까지…… 25개 역을 지었는데 100년 뒤에 문화재로 남을 역을 현재는 자신 못 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지은 서울역사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투명하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꼭 작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쭙면 장관님, 전주에 순회 우회도로가 있어요. 57km인데 지난 십수년 걸쳐 가지고 47km는 4차선으로 했어요. 그런데 10km를 2차선으로 하니 전체 57km가 다 2차선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째 주장해서 B/C 교통연구원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경제적 타당성 유효 1.02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요구에 따라서 4차선 확장하는 것 관심 갖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이 다 됐네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자, 도로공사 사장님, 그게 도로공사에서 건설했으면 한 4800원이면 되는데 현재 9600원 2배 문단 말이에요. 지난 천안-논산 고속도로 생기고 충청도, 호남 사람들이 몇 천 억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또 이번에 평택에서 부여해 가지고 익산 연결하는 것 이거 2014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느닷없이 도로공사에서 민자사업으로 바뀌었던 말이에요. 이것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여 분들 그리고 익산 분들이 며칠 전에 와서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요, 그것 한번 원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재정에 비해서 지금 2.2배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익산 간 고속도로 저희는 재정사업하기를 희망하는데 도로공사 사장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동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공사 사장님 생각대로 원래 2014년까지는 재정사

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이거 누가 바꾼 거예요?

도로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도로국장이 지금 안 계십니다. 일단……

○정동영 위원 장관님, 바꾼 것이 그것으로 왜 바뀌었는지 그 배경을 나중에 서면보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지금 즉 진행하고 있는 데요.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다 했고요, 그래서 재구조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돼서 올해 10월 이 정도 되면, 늦어도 12월 이 정도 안에는 통행료를 재정으로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해서 아마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2014년에 이미 이게 민자로 제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간선망도로 일 경우에는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처럼 이미 사업이 너무 많이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보상도 해야 하고 손해배상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돈이 민간 투자비가 75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늦어지지 않도록 올해 9월 달에 이제 승인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부여-익산은 앞으로 몇 십 년 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왕 하시면 익산-부여 구간도 공식 착공을 그대로 꼭 해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철도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점상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장관님께서 2017년 6월 취임 무렵에 철도공사하고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SR의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따져 보고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안호영 위원 그리고 그로부터 한 1년쯤, 2018년도 6월 정도 돼서 철도산업 구조 평가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연구용역이 된 지 상당히 됐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연구용역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 중단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에 KTX가 강릉에서 넘어지는 철도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철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용역에 나중에 함께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안호영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감사 청구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철도공사하고 SR의 통합 여부 문제는…… 감사 청구한 것은 주로 상하 철도시설 문제하고 운영하는 경우의 어떤, 상하 분리했던 적정성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철도공사하고 SR의 통합 문제에서 별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 사고를 이유로 해서 사실은 통합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는 안전 문제하고 통합 문제하고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노조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시스템 전반에 관한 문제는 철도산업 구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그렇게 의지를 밝히신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감사는 이제 조만간 끝난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안호영 위원 끝나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탈선사고 이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철도연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또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개선방안 연구 이런 정책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안호영 위원 감사 끝나고 나면 또 이 용역을 하면 이것은 언제 정도에 끝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은 감사 결과를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또 정책연구용역 2건이 발주가 됐는데 감사 끝나고 나서 이 용역 하고 나면 결과 나오는 데 시간이 상당 정도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어차피 통합용역을 하더라도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구조개편 용역도.

○안호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자꾸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 거냐, 과거에 국토부가 분리를 했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 의지가 실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 이런 얘기인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관련된 부분 잠깐 여쭙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사실 군산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지역경제 회복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산업으로 2018년도 추경예산으로 새만금 산단에다가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용지를 10만 평 그리고 2019년도에 또 10만 평 정도를 순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산들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실제로 입주하고 투자협약을 원하는 기업들의 임대용지에 대한 수요가 한 107만㎡로 해서 기왕 이미 확보했던 20만 평(66만

m²) 임대용지가 지금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 확보가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입주…… 예전에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새만금청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없어 가지고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입주 수요가 많은데 이렇게 임대용지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 임대용지 구입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가 좀 더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34만m²—10만 평 규모인데요.—이번에 추경예산에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비 국비 280억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어쨌든 임대용지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서, 수요가 많아서 활발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최근에 또 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임대용지 조성사업비로 280억 원을 저희 정부가 지금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도로공사, 잠깐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톨게이트 수납원 지위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켜서 톨게이트 수납원 6500명 중에서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자회사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된 그런 상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5054명입니다.

○**안호영 위원** 예,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또 스마트 톨링(smart tolling)이 도입되면 요금소에 투입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요금소에 투입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걱정을 해서 그런지 실제로 본사 직접고용을 위해서 농성도 들어가고 그 문제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 톨링이 도입되면 실제로 많은 인원들이 감축될 그런 위험에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스마트 톨링하고 수납원 사태하고는 지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스마트 톨링은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또 그리고 스마트 톨링을 하려고 그러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

습니다. 첫 번째가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법 개정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적단속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기술적인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사실 많은 논의 끝에 2022년 이후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회사를 출범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톨링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하이패스 보급률을 더 높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정 정도 스마트 톨링을 하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납원들을 새로 뽑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들, 법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에 스마트 톨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수납원들 입장에서는 스마트 톨링이라는 불안은, 부담은 별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장관님, 장관님은 지금 3기 신도시도 잘 해결해야 되시고요 또 더불어서 1·2기 신도시 문제도 잘 풀어내야 되니까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자식이 여럿이면 그렇습니다. 큰 아들 편만 들 수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생겨서 최기주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기대가 큼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예.

○**홍철호 위원** 표정에서도 그렇지요, 표정도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혼자 하시는 건 아니지요.

장관님, 2018년 12월에 말이지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하실 때 ‘지자체와 협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말하자면 시간과의 싸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홍철호 위원** 그때 발표하셨으니까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홍철호 위원** 김포시가 그 짐을 털어드리려고,

마음도 급해요, 김포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예타 조사 용역을 지금 줘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홍철호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5월 24일 날 ‘타당성이 확보된 노선 계획이나 그리고 예타가 구체화될 경우에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상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줬거든요. 그것은 이제 장관님 뜻이나 똑같은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홍철호 위원 당연하지요. 예타 잘 나오고 또 노선도 확정이 되면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부터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김포시가 용역했는데 우선 예타값이 타당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지자체 간 합의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니까요. 만약에 합의를 전제로 해서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자체 간에 협의가 되면 당연하지요.

○홍철호 위원 게다가 국토부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것 연구용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이것도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홍철호 위원 그래서 김포시 자체 용역 결과가 제가 보기에 한 2주 정도 후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이 예타를 감안해서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좀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역에서 보내 온 검토 결과들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참고는 하지요.

○홍철호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홍철호 위원 대광위원장님께, 장관님하고 저하고 지금 말씀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 수립해서 발표하실 예정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전제하에 김포시에서 나오는 용역 결과값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값이 나오고 그리고 노선도

크게 대광위에서 볼 때 하시면 이것 대책 발표할 때 포함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 자체적으로 서울과기대하고 한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노선대를 발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다 수용해서 8월에 기본구상에 입히고 그것을 교통연구원과 합의해서……

○홍철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요, 이것을 먼저 닭이 먼저냐면 지자체 간의 협의가 이제 이 단계만 넘으면 된다는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서 자꾸 누락을 시켜 주면 MOU 맺고 합의 들어가는 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대광위에서 조정해 주시려 그래도 사실은 강제 권한을 어디까지 하시기는 장담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광위에서 좀…… 3기 신도시는 집값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1·2기 신도시 문제는 교통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광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문제 꼭 좀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님,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울-강화 고속도로 가지고 사장님이 김포시민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명확하게 챙기지를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난처한데요.

○홍철호 위원 그럼 누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희가 사업 재구조화를 해서 지금 아마……

○홍철호 위원 예타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뒤에 누구 책임자, 혹시 답변하실 만한 분 안 계세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이용욱 과장.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도로정책과장입니다.

○홍철호 위원 제가 말하면 주민들은 신뢰가 조금 약해요, 정치인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도로공

사에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국토부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민자로 들어온 이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이 없어서 반려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김포에서부터 강화까지 가는 노선을 재기획하였고 그것을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그것을 금년에 착수했기 때문에 연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홍철호 위원 연말?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0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예타 타당성조사 값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값에 따라서 착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 예타 결과가 잘 나올……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예.

○홍철호 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님, 혹시 이따가 가실 겁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아닙니다.

○홍철호 위원 안 가시면 제가 김포도시철도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 이따 조금만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김현미 장관님 이하 소관기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국토위로 왔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김현미 장관님, 3기 신도시의 개발원칙이 선 교통 후 입주가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조응천 위원 그걸 내세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 교통 후 입주까지는 아니고요, 교통과 입주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응천 위원 최소한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조응천 위원 지금 1·2기 신도시는 그렇게 못 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조응천 위원 그러면 3기 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주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3~24년에 분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26년, 27년, 28년 이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응천 위원 26~27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최초는 24년부터 랍니다.

○조응천 위원 24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조응천 위원 24년에서 몇 년까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조그마하게 하는 입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했던 것.

○조응천 위원 그러면 왕숙처럼 큰 곳은 언제쯤 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왕숙같이 큰 데는 26~27년에 됩니다.

○조응천 위원 26~27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조응천 위원 광역교통망 구축이 대개 신도시 입주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갭이 한 2년 정도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은 왕숙에 있어서 제일 큰 것은 GTX-B가 제일 큰 거고요.

○조응천 위원 그러면 GTX-B는 지금 개통을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GTX-B가 올해 예타가 통과되면 착공을 22년쯤 하게 됩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개통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공사기간 5년 잡으니까……

○조응천 위원 27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조응천 위원 그러면 거의 동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응천 위원 지금 신도시의 선 교통 후 입주 혹은 동시개통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공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하루라도 빨리 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예타가 통과돼야 되

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조응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관석 간사님도 계시지만 최근 당정청협의회 결과 지금 제일 늦은 GTX-B에 대해 가지고 예타 조사 결과를 9월 이전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동의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저희들도 예산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기재부하고 협의 잘 돼 가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조응천 위원 9월 이전에 예타 결과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조응천 위원 그러면 저희는 9월 이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GTX-B가 왕숙 입주와 동시에만 된다면 다행인데 지금 지역에서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불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춘선 사정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GTX-B가 완공되기 전에는 철도는 경춘선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중점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청량리입니다.

○조응천 위원 청량리 아닙니다. 상봉입니다, 상봉. 회기에서 청량리 사이가 제일 트래픽이 많이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상봉이고요. 청량리에 하루에 열 편 정도 갑니다. 그러면 서울 웬만한 데 가려면 세 번을 갈아타야 돼요. 세 번 갈아타면 지하철을 잘 안 탑니다. 한 번 갈아타는 것 오케이, 두 번은 진짜 망설이는데 세 번 갈아타면 안 갈아탑니다. 그런데 경춘선 이용자들은 다 지금 세 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리고 배차 간격이 20~30분입니다. 1시간에 2~3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기는 있는데 타 봐야 세 번 갈아타고 20~30분 기다려야 되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GTX-B만 믿고 있다가 이것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란 중에 이런 대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 지금 분당선이 청량리까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경춘선으로 보내 가지고 마석까지라도 먼저 오면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고 동북부에서는 여기에 지금 거의 명운을 걸고 있는데 장관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B만 믿고 있다가 이것 늦어 버리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선을 경춘선의 마석역까지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했고요. 이게 상하행으로 총 18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로 용량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코레일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연장 운행을 하게 되면 추가 차량이 편성……

○조응천 위원 차량은 시에서 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16억 정도 드는데요. 차량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차는 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다 보내 달라는 것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몇 개라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건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고맙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3개 정도만 출퇴근 시간에 보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조응천 위원 대광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경춘선 전철이 1시간에 2~3대밖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춘천까지 다 뛰어 가지고 그러는데 솔직히 마석역 지나가면 거의 공차로 가거든요. 이걸 경의·중앙선처럼 이원화해 가지고 마석역을 종점으로 하는 것, 그리고 춘천을 종점으로 하는 것, 이원화하면 경기 동북부 쪽에서는 운행 횟수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특별히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광위원장님께서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는데 이것 가능하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일단 경춘선 하고, 일산선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제가 일선에 지난주에도 죽 한번 돌았고요. 현재 실적 기반의 카드 데이터, 그다음에 실적 기반으로 해서 우선제가 이번 수요일 날 손병석 사장님을 한번 같이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광위원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동부에서 광역버스나 M버스를 타면 종점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잠실환승센터입니다. 모두 다 잠실로 가거든요. 그렇게 다 모이다 보니까 올림픽이나 강변도로에서 잠실환승센터까지 가는 데 아침 출근시간에는 한 30분이 걸립니다, 병목현상이 있어 가지고요. 토끼굴 통과하고 혹은 잠실대교 올라가는 램프 올라가는 데 한 30분 걸립니다. 뻥히 보이는 데에서 30분을 허비하다 보니까 이것 이럴 필요가 왜 있느냐? 나는 2호선을 안 타는데 혹은 나는 강남을 안 가는데, 강북으로 가야 되는데, 강변역에 세워 주면 30분 그렇게 안 버려도 되고 거리도 가깝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은 광나루역 거쳐 가지고 가면 5호선도 탈 수 있고.

이건 대광위원장님께서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잠실에 모일 이유가 뭘니까, 버스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그렇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강변역에 내려 주면 동일한 차량 대수로 훨씬 기다리는 시간을 평내호평 쪽에서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선정위원회 및 정류장 조정 같은 부분을 M버스 포함해서 광역버스에 조만간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조응천 위원** 5호선 광나루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예, 알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관석**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함진규 위원입니다.

김현미 장관님,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드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드론이요?

○**咸珍圭 위원** 날아다니는 드론 한번 날려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행사장에서 날려 봤습니다.

○**咸珍圭 위원** 날려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저기 한강 지금 보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배만 몇 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놀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4차·5차 산업혁명의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AI, 드론 등등등 해서 4차·5차 산업 분야가 엄청 많은데 드론 분야도 그중의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인명구조, 농업용, 각 분야 산업에 쓰이고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저는 국토위원이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미래를 조금만 내다본다면 SOC 예산 기왕에도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이 줄었는데 SOC 예산 조만간 더 늘려도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왜냐? 국회 여기 올 때 다 드론 타고 올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한데, 우리 정부에서 과연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얼마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들여다보니까 여기도 규제가 엄청 많아요.

중국의 DJI라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그게 한 칠팔십%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저는 왜 그런가 봤어요. 역사도

한 10여 년, 한 십이삼 년 이 정도, 2006년인가 2007, 2008년 정도에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관심이거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항공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이것 근본적으로…… 개별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이 한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법하고는 별도의 독자적인 기본법을 정부안이 됐든 널 용의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드론산업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咸珍圭 위원 아니 그것은 항공법의 적용을 받고, 보면 어느 지역으로 이걸 가져갈 거냐 그걸 논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별도의 기본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부지 선정, 그러니까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만드는데 강원도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1차가 이렇게 됐어요. 2차가 인천 서구, 경기 화성인데 문제는 서울 사람들이 날려 볼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화성에 만들었습니다.

○咸珍圭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화성에 만들었습니다.

○咸珍圭 위원 아니, 서울 사람이 날려 볼 데가 없다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은 아시다시피……

○咸珍圭 위원 내가 국회에서 날려 보려고 그랬더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안전에 의한 규제 때문에 여기는 안 됩니다.

○咸珍圭 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제가 말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규제는, 대한민국의 드론 관련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규제 완화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咸珍圭 위원 ‘레디투플라이(Ready to fly)’라고 아세요, 레디투플라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咸珍圭 위원 모르세요? 지도를, 앱을 깔아 버리면 드론을 어디서 날릴 수 있는지 어디서 못 날릴 수 있는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 고양시

북부, 파주, 연천 저쪽으로는 그냥 38선 치듯이 죽 띠를 해 놓았어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막아 놓은 건지 모르지만. 제가 날리고 싶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은 국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咸珍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규제를 해 놓으면 서울 사람들이 교육은 국회에서도 받고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날려 볼 데가 없어요, 날려 볼 데가, 수도권이 전부 규제지역이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울은 날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강이 놓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수중드론, 물에 떨어뜨리더라도 다시 이륙할 수 있는, 양쪽에서 날리면 되거든요. 배 갈 데만 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 있는 데만 피해 주고 이격거리 두고, 이것을 호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 분야를 높여 주려면, 여기서부터 하남까지 확 물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만 어느 정도 저감된다면 한강변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서울시나 젊은 친구들의 이런 욕구를 굉장히 충족시켜 주면서도 대중화하는 데 굉장히 기술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 같은 경우에 비행구역 제한되는 게 9.3km 정도고요, 공항 반경 9.3km 이 정도입니다. 베이징이나 도쿄나 워싱턴에 비하면 서울이 굉장히 규제가 없는 도시입니다.

○咸珍圭 위원 저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咸珍圭 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다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작년에 저희가 규제 완화를, 거의 다 풀어 가지고 세계에서 드론에 관한 규제 수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풀린 나라입니다.

○咸珍圭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날릴 장소가 없다니까요? 양재천이나 안양천이나 이런 데서 조금 날려 보면 날려 봤지 날려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따 끝나고 나하고 논쟁 한번 하

시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안전성이거든요, 드론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이걸 제가 물어봤더니 정부 예산에 이번에 추정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예산에서……

캡을 씌우는 거 있지요? 농업용 드론이든 뭐든 프로펠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도 주고 가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캡을 씌우는 걸 개발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하실 용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드론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안전장치를, 캡을 씌우는 것을 누가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제조업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 정부에서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만 담보가 되면 배터리 개발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하면 되고 그런 안전성, 드론이 날아다녀도 피해가 없다 이런 인상만 심어 주면 굉장히 활용 분야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것 관심은 갖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저희 실무자를 보내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咸珍圭 위원 나하고 이따 끝나고 토론 한번 하시자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러시지요.

○咸珍圭 위원 1분만 더 주실래요?

이강래 사장님, 제가 작년에 도공 국정감사를 하면서 ex-cafe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강래 사장님은 의정 경험도 많으신 분이요, 아마 제가 판단컨대 제 추측입니다만 앞으로 사장님 무지하게 많이 찾아갈 거예요. 정치권이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찾아갈 건데 제가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사장님 본인은 그런 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정치하면서 그런 사람 없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ex-cafe에 대해서, 여기 속기록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 수사 중이지요, 그렇

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김포 도로와 관련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김치사업은 뭐예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김포-과주 관련해서 어떤 문제 말씀하시지요?

○咸珍圭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치사업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되어서 전북진안 부귀농협이라고 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들어 본 것 같습니다.

○咸珍圭 위원 내용 잘 모르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잘 모릅니다.

○咸珍圭 위원 이따가 제가 다시 여쭙볼게요.

○위원장대리 윤관석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주승용 위원 내년 총선 안 나가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은 나갈 생각입니다.

○주승용 위원 그러면 이번 개각에 혹시 소식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모릅니다.

○주승용 위원 예측 가능해야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주승용 위원 코레일하고 SR 통합 용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주승용 위원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장관님도 취임하자마자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공개 석상에서 회의에서도 통합 TF까지 구성하고 정말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오영식 그 당시 사장도 이걸 자기의 제1번 과제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야

심차게 정말 강행을 했는데 강원도 사건 나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오영식 사장 그만두면서 흐지부지 또 장관도 그냥 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이렇게 의지가 약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SR 설립할 때 철야농성까지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철야농성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절대 코레일과 SR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과 같이 4000km도 안 되는 철도 길이 가지고는 경쟁체제 이게 잘 맞지 않다' 그렇게 그 당시 주장해 가지고 철야농성까지 해 오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경쟁체제를 하려면 수서에서도 코레일도 출발하고 SR도 출발하고,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도 코레일도 출발하고 SR도 출발해야 이게 경쟁체제지 수서에서는 SR만 출발하고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는 코레일만 출발하고 이걸 경쟁체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SR은 KTX만 운행하고 코레일은 일반 열차, 화물열차도 같이 운행하고. 일반열차와 화물열차가 1년에 적자액이 거의 1조 가까이 돼요, 1조 가까이. 그러니까 코레일은 적자 볼 수밖에 없어요. 작년도 적자가 3268억이에요. 이게 경쟁입니까? 그러면 SR에게도 일반열차나 화물열차를 줘 줘야지요. 그래야 경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SR만 혼자 10%씩 할인해 주고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경쟁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레일과 SR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강원도 사고가 났다고 해서 중단해 놓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오히려 SR 했다가 GTX 건설 준다 그런 말까지 들리고, SR하고 코레일 통합은 물 건너간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까 안호영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어서, 코레일 차량이 전복, 넘어지고 난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의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또 시설공단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가 지금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주승용 위원 안전 문제하고 통합 문제는, 물론 열차 운행 문제이기 때문에 다 연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SR 자체가 처음에 태동하지 않았어야 될 회사가 태동해 가지고 지금 코레일

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또 코레일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중복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광고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평택-오송 간에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열차 배차 문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통합 배차를 하게 된다면 연간 3268억 영업 수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용역 결과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통합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통합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이렇게 흐지부지될 수가 있는가 저는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감사가 이제 곧 끝나가니까요……

○주승용 위원 감사 핑계 대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수서발 전라선 KTX 면허 내 줄 겁니까, 안 내 줄 겁니까? 제가 이것 장관님께 질문을 하니까 그때 장관님께서 '평창 올림픽 끝나면 해 주겠다' 또 평창올림픽 끝나니까 '그것에 투입했던 열차들을 도색을 다시 해야 되니까 몇 달만 기다려 달라' 오영식 사장도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평창 올림픽 끝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면허가 안 나오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코레일에서 SR로 차량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평창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KTX를 증편해서 도입을 하도록, 주말에 네 번 정도 추가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개월 내에 시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주승용 위원 어디에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라선에.

○주승용 위원 전라선 어디, 수서에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요, KTX.

○주승용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다음에 SR 같은 경우에는 지금 SR이 신차를 도입해야 되는데 2024년이 되면 14편성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마시고요. 지금 SR이 수서에서만 출발하다 보니까 전라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울역·용산역까지 가서, 강남에 사는 분들은 서울역·용산역에서 또 강남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지, 비용도 더 들지, 지금 그런 피해를 입고
있어요, 전라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열차가 남은 것을 코레일에서는
SR에 안 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주승용 위원 그리고 SR은 그것을 자체 확보
하려면 한 4년 걸려야 된다고, 그러면 4년을 기
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주승용 위원 그러면 코레일에다 면허를 내 주
면 될 것 아니에요? 코레일에다가 SR을 다니게
끔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수서에서.

그러니까 코레일에다 면허를 주든지 SR에다
면허를 주든지 전라선 면허만 주면 될 것 아니에
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두 회사를 어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주승용 위원 또 그 이야기 하면 통합 이야기
를, 용역 끝나고 나서는 다르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로가 지금 그것 때
문에, 차량도 안 빌려주고 하는 게 다 거기에 연
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승용 위원 아니에요. 통합하고 면허하고는
다른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같은 선상에 있습니
다. 서로가…… 아시잖아요, 누가 이것을 주장하
는지.

○주승용 위원 그러면 평택-오송 구간이 또 나
와요, 북북선화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는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택-오송은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주승용 위원 그러면 용역할 겁니까? 그러면
감사원도 감사가 끝나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감사원 감사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재개할 겁니다.

○주승용 위원 수서에서도 전라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 맨날 용역 핑계만 대시고, 감사
원 핑계 대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주승용 위원 지금 익산-여수 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세요.

철도공사 사장님, 익산-여수 간 내년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라선 고속
화 추진방안을 지금 사전 타당성조사를 착수하고
있는데 대안을 세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계신 것
은 알고 계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그것 아마 공단에
서……

○주승용 위원 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님!

아까 김상균 이사장님 계시더니만 어디 가서
버렸네.

몰라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황성규 지금 구체적인 용
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승용 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
다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황성규 예, 타당성조사를
해서……

○주승용 위원 이 용역이 2018년 8월 달에 한
용역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국토교통부철도국장 황성규 한 1년 6개월 걸
립니다, 보통 철도들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모든 용역이 1년 이상
은 다 하지요, 웬만한 용역은 다.

○주승용 위원 용역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있어
요.

내년에 4차 철도망 구축계획 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황성규 예, 거기에 타당
성조사 결과……

○주승용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결과가 늦게
나오니까 반영도 안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황성규 아닙니다. 최종적
으로 20년 말까지 수립하기 때문에 그전에 나오
면 그걸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관석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
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
회했다가 20분 지나서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하시는 거지요, 장관님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웃음)

○**강훈식 위원** 고생 많이 하셔서 참 큰일입니다.

장관님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차관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5월에 제가 국토부에 의뢰해서 받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3조 6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2월에 서부내륙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2조 1628억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보상비를 5066억 더해 준다고 해도 2조 6600억 정도 규모거든요. 2년 사이에 사업비가 1조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차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예.

그런데 보면 2조 6000억 원은 불변가격 기준 총 사업비이고 3조 6000억은 경상가격 기준 총 투자비입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예.

○**강훈식 위원** 사업자와 총 사업비 기준으로 협약을 맺고 감독기관인 국회에는 총 투자비로 보고한 이유가 뭐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

○**강훈식 위원** 2개 기준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예.

○**강훈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자는 2조 6000억에 계약을 한 거고 국회에는 3조 6000억이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일단 사업자하고 계약한 게 기준이 되고요. 국회에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렇지요? 사업자하고 계약한 게 기준입니다. 이것 실제 기재부로 갔습니다. ‘실시협약상 불변가격 기준 총 사업비 변경이 없었다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조 6000억이 기준인 거지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됩니다.

○**강훈식 위원** 물가상승률, 그렇지요. 물가상승률은 반영할 수 있겠지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네 차례 반려됩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예.

○**강훈식 위원** 그러면서 사업비 증가 요인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것만 발생한 게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강훈식 위원** 2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만. 이제 10% 가까이 온 겁니다. 장관님 옆에서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2조 6000억인데 200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10%가 넘어가면 실시협약상 다시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2조 6000억으로 해 놓고, 지금 이미 2000억이 늘었으니까 10% 가까이 차 온 거예요. 물론 더 있습니다. 더 늘어날 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 2조 6000억 전체가 다시 다 가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3조 6000억으로 2년 사이에 1조를 늘린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강훈식 위원** 도로공사 사장님, 저기 앞에 잠깐 서 주실래요?

당진-아산 사업의 인주분기점 계획에 서부내륙고속도로랑 붙는 부분에 대한 설치계획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훈식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강훈식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서부내륙 사업이 몇 달 먼저 진행됐다고 선행 사업이라고 우기면서 이 사업비를 도로공사에 내라고 합니다. 맞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이견이 있으면 안 되지요, 국책 사업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건데.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분기점은 후발 노선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 당진-아산-천안 건설 사업은 0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거기에 비해서 서부내륙은 2014년도에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발 사업이 서부내륙이기 때문에……

○강훈식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면 도로공사 사장님 말이 맞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먼저 사업을 했는데, 민자 고속도로를 뒤에 놓는데, 놓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네 차례 반려한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네 차례 반려되면서 2000억 정도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교차하는 북면에 분기점을 놔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디다 두냐? 서부내륙에다 두면 이게 전체 사업비를 다시 재검토받아야 되니까 도로공사한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도로공사는 그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민자사업 하나 살리려고 도로공사가 그 부담을 안아서 10% 안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사업비가 2조 6000억이 아니라 3조 6000억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백번 양보해서 민자고속도로가 원래 계획대로 했다고 해서 하자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지고 그 부담은 도로공사가 지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이 사업 전반을……

실제로 계약체결 내용에도, 제가 본 바에 따르면 다시 원안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일부의 민간사업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계속 사업비를 늘려서 국회에다가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이것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좋은데요, 이게 2000억인데 IC 하나만 추가해도 600억 원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지역의 민원들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민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 하면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요건이 됩니다. 이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는 요건이 된다는 거지요, 다시.

그런데 이미 네 차례나 반려해 가지고 네 차례 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장관님 답변이 너무 짧으시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더 이상 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강훈식 위원님 보충질의 더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장관님, SR·KR 철도시설공단 한번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나면 다시 고치는 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했을 때 국토부 입장이 어땠어요?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쳤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오히려 영산강이라도 원하는 데 한 군데 하고 나서 나머지 했으면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한번 무슨 일을 결정하면 이게 금과옥조가 아닙니다. 맞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해공항을 늘리자, 이것 잘못됐으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확장성이 없으니까 늘려 보자라고 해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 세 번, 부산시에서 두 번, 대구에서도 한 번을 했어요,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이 되겠느냐? 다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이나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던 5개 지자체가

같이 해서 해라라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때도 대구·경북에서 대구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구가 통합공항 이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구는.

그런데 부·울·경도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대구·경북은 이전 후보지를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대구·경북 일각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대구 통합공항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의 문제고 24시간 뜨지 않는 공항을 7조를 들여서 만들어 본들 무슨 국가적으로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대구 통합공항 사업에 1%의 이견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또 부·울·경은 우리가 상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관문공항을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7조를 들여서 지금 김해공항 확장을 해 본들 더 이상 확장도 안 되지만 24시간 뜨지도 못하는 공항을 만들어서 국가가 앞으로 영남·호남 지역의 모든 물류, 여러 가지 항공을 어떻게 감당해내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잘못된 결정이면 국토부에서도 이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결정을 내리면 이게……

모든 부처가 자기들 결정 내린 것은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울·경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장관님 더 잘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총리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총리실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도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만약에 공항이 어떤 결정이 나면 이걸 24시간 뜨는 공항이 아니니까 새롭게 어디를 구해 보자 할 때……

지금 대구·경북에서 부산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몇 %인지 압니까? 경주하고 이게 일부분한 4~5%뿐이 안 됩니다. 대구·경북에서는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논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부·울·경에서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에 맞는 통합이전공항을 만들고 부·울·경은 부·울·경에 맞는 또 24시간 뜰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서 서로 상생을 하면 돼요.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결정할 때 인구가 줄어든다, 여행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요새 배낭여행으로 오는 분들 많지요. 하물며 BTS의 두 사람 고향이 부산입니다. 인도에서 그걸 보러 부산에 오려면 항상 인천공항을 거쳐서 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놔 놓고, 앞으로 공항 여객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중장비 플랜트 수출 배로 수출하는 것 말고는 공항으로 수출할 수 없으니까 그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들어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다 간다면 이제는 양쪽의 축을 가지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드는 게 기본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입장이……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하나만 더 첨부하자면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총리실 결정을 장관님이 수용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총리실의 검토 결과를 국토부와 부·울·경 모두 수용한다고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해신공항이 영남권 신공항으로서 적정하다는 국토부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부산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전성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또 관문공항으로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검토를 받아 보자라는 것이고, 저희 국토부로서는 그런 검토를 받으면 충분히 김해신공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정들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국토부는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박재호 위원 장관님, 국토부가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이걸 해야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부 다 중앙집중식 사고방식입니다.

지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을…… 국토부에서 했던 안을 과거에 했다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또 세상에 따라서 다 변할 수 있지요. 그걸 어떻게 국토부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한 게 다 맞다. 우리는 검토 두 번 다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영남 전체 또 호남 전체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려고요? 그래서 장관님은 국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 하더라도 국토부 관료들을 설득하고 해내야지요.

잘못된 결정이 한두 개입니까? 4대강 사업, 조금 전에 SR, 모든 이런 문제를 한번 결정을 잘못 내놓으면 엄청난 소용돌이에 말리고 또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24시간 뜨지도 못하는 공항을 만들어서 그걸 관문공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음부터 관문공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했으면 말도 없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논쟁할 이유도 없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부터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 민자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민자철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되돌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책의 전환을 할 때에는 전환을 할 만한 합리적 근거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전환을 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가 김해신공항을 걱정하지 않다고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논의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그 결과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부산·울산·경남도 수용하기로 한 약속을 함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7~8조를 들여서 24시간 뜨지도 못하는 공항을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항들은 많습니다.

○**박재호 위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욱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민경욱 위원님.

○**민경욱 위원** 제가 아까 시작도 하기 전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께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김포-파주 터키 심사 관련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회의록의 의미를 잘 모르실 리는 없을 텐데 아까 제가 ‘임원 회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강래 사장님께서 ‘예’ 하고 지금 요구자료라고 해서 왔는데 회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회의록이 아닙니다.

3선 하시고 그러신 훌륭한 분께서 회의록을 모르실까 봐..... 회의록이란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작성해서 보관하는 문서’ 혹은 회의록이란 ‘어떤 안건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 교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런 과정이 하나도 써 있지 않거든요.

주의를 주시고 아까 회의록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질의 시작하기 전에 회의록을 제출해서 우리들이 참고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님께서 민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의록을 질의하기 전에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 또는 가덕도 신공항 입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대구 통합공항 이전 문제와 연계되는 것같이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해신공항은 남부권 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부·울·경·대구·경북 5개 지자체가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대구 통합공항은 K2 군사공항의 이전과 관련해서 민간공항까지 같이 이전하기로 하고 저가항공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에 장래에 한 1000만~1200만 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공항입니다.

예산 조달도 김해신공항은 새로운 국비 투입 7~8조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대구 통합공항은 현재 있는 부지를 팔아서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연관해서 논하기는 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도로공사사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김상훈 위원 지난 국감 때,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유독 특정 업체에 대한 수혜성 발주가 많았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뭘 말씀하시지요?

○김상훈 위원 고속도로상의 졸음쉼터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그때 모 여성 기업에게 거의 70% 이상 독점적으로 발주가 된 사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현재 수사 중입니다마는—ex-cafe에 특정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분이 운영하는 커피 메이커를 연이어서 납품하게 된 데 굉장히 석연치 않은 특혜 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지적이 된 바가 있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마는 고속도로 휴게소상에 중국 김치를 몰아낸다는 취지에서 특정 농협에서 생산한 제품을 상당히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어요. 그것은 기존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김치를 납품하던 국산 김치 납품업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박덕흠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오전에 잠깐 자료 요구를 할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김포-파주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하도로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3개 사가 응찰했는데 지금 제보에 의하면 사장님께서 특정 D업체에 낙찰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흥 모 건설본부장이 사장님의 지시사항이 부당하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해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H건설이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이 결과가 굉장히 공정하게 처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장님이 지시하신 내용으로 결정이 됐으면 그것은 대개 불공정했겠

지요. 그런데 모 건설본부장이 부하직원에게 사장님의 지시가 사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라라고 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낙찰 과정이 공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 모 건설본부장에게 사표 수리……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김상훈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모 건설본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신 적 있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상훈 위원 사표를 요구한 바가 있고 사표가 수리됐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도……

○김상훈 위원 모 건설본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수리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특정 업체를 입에 올려 본 적이 없습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모 건설본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수리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 6월 2일 자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유로 접근이나 파주 관련된……

○김상훈 위원 제가 ‘사표 수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묻잖아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사표를 수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듣고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박덕흠 사장님, 질문하는 요지에 대답을 해 주시고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희 건설본부장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 과정에 바로 김포-파주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의 낙찰 건이 관련이 있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30년 이상 봉직한 고위 임원에게 하루아침에 사표 수리를 요구하고 사표가 수리가 됐어요. 이게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부사장에게

도 사표 수리를 요구했는데 건설본부장만 현재 면직 처리가 됐어요. 그 건설본부장은 뒤에 우리 의원실에서 접촉한 바에 의하면 본인이 별도의 멘트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사표 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해석입니까, 사실입니까?

○**김상훈 위원** 이 뒤에도 우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까라는 이런 식연치 않은 과정이 유독 우리 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희들은 이것은 굉장히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위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덕흠** 예, 설명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건설본부장이 사표를 내서 사표 수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파주 낙찰 과정에서 자유로의 연결 부분이나 파주시 접근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파주시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런 과정에 저희 내부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통 속에서 이 건설본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고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표 수리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사표를 수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뒤의 정황을 저희들이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그러면 사장님 지금 말씀은 사표 낸 것이 입찰 관련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거기 입찰 과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 감정원장님 나오셨지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예.

○**김철민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께

서 감정원 명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로 잠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금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했지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실질적인 감정 업무에는 철수했지만요……

○**김철민 위원** 그러니까 철수했지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관련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감정원이 감정 업무는 안 하잖아요, 맞지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감정 업무는 안 하는데 감정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감정 업무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봤어요. 감정 업무 안 하지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직접적인 감정 업무는 안 합니다.

○**김철민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국감을 통해 몇 번에 걸쳐서 감정원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전임 원장님들이 나오실 때마다 변경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7월 4일 날 한국감정원 노조가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주제님은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요구와 비방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내용 보셨습니까?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예, 읽어 봤습니다.

○**김철민 위원**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간에 ‘정부와 국회도 동조한 것이, 즉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에 동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협박성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 보셨지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예, 봤습니다.

○**김철민 위원** 감정원에서 한국감정원 노조의 이런 강성 발언 때문에 의당히 바뀌야 될 명칭을 못 바꾸는 것 아닙니까?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러면 왜 안 바뀌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장관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저도 전번 국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업무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 위원** 아니, 전임 원장님들 국감에서

다 그렇게 발언했는데 지금 원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안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는 노조의 여러 가지 요구 때문에 못 바꾸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장관님께서 오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감정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세워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알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LH공사 사장님 오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변창흠입니다.

○**김철민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이 영구임대아파트의 냉방 설치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죄송하지만 아직 그것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철민 위원** 아, 그랬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김철민 위원** 제가 작년 국감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냉방 설치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점에 대해 국토부장관님도, 그 당시에 LH 사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LH는 기존에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 냉방 설치는 기존 에어컨 보유 대수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예산 문제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서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다른 게 아니고 단지별로 하나씩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그것은 얘기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런데 수치를 따져 보니까 쉼터 1개당 600세대를 소화해야 되는데 600세대에 살고 있는 서민층들이 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서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노후 임대주택의 경우에 국비지원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13만 세대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 비용들을 다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후 임대주택 중에서 아주 시설이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냉방 문제뿐만 아니라 난방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에너지 저감형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올해 폭염이 예상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일반적인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다들 뭐 그렇겠지만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참 열악하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김철민 위원** 또 거기에 보면 약 40%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냉난방 설치를 해 주는 것이 LH가 해야 될 역할이고 책무인데 자꾸 예산 타령하고 국토부 타령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일반 가구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철민 위원** 가만히 계세요.

예산을 국토부에서만 받지 마시고 LH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줄 의향이 있느냐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일반 가구에서도 모든 가정이 다 냉방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냉방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또 별도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러니까 냉방 쉼터를, 하여튼간에 운영비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선별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해 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도 노후 시설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 이런 비슷한, 우리처럼 한 110만 세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노후 임대주택 지원 관리비로 한 7조 원 정도 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00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노후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대행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축에서 너무나 우리 정책의 기본 인식이 낭만적인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우선 저는 낭만적 평화관 이것 때문에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낭만적 환경관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정당이 다르니까 철학이 다르겠지요.

○**송석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다양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하는 것,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관님 남북 연결 도로, 남북 철도 연결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어떤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되었고 평화를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가고 있지요. 가고 있지만 당초에 우리가 착공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는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고 그렇지만 현실은 거꾸로 국제 정세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쟁과 분단 70년의 역사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럼요. 그래서 그게 냉혹한 현실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이 냉혹한 현실일수록 우리가 낭만주의에 취해서 접근하면 안 되지요. 보다 더 현실에 입각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낭만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석준 위원** 냉혹한 접근, 치밀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남북 철도 연결한다고 착공식하고 이라는 동안에 해로가 어땠습니까? 이번에 삼척, 북한 어선이 입항하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송석준 위원** 잘 모르시는 분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장관님께서서는 현재 국무위원이십니다. 국무위원님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더구나 국토해양부, 과거 우리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하고 아주 긴밀한, 특히 이런 물류 측면에서 해양 물류나 육상물류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양도 국토의 일부입니다. 그런 인식하에 해양 정책을 또 같이 이해하고 서로 연계, 이런 정책을 검토하셔야지 그것은 노 마이 볼(no my ball)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목선 문제는 물류 문제가 아니고 국방 문제가 아닌가요?

○**송석준 위원** 그게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해양사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런 해상에 오가는 모든 선박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가가 정보를 제대로 갖고서 그런 사고도 예방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남북 간의 이런 미묘한 서로 국방, 남북 경계선을 오갈 때 그럴 때 우리 정부가 긴밀하게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공간 정보…… 제가 항상 많이 강조 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해상이나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청와대 지하 벙커에 가면 해상이나 육상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폭발음 또는 기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추적이 됩니다.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낭만적 환경관 말씀을 드렸는데 지

금 이 정부 들어서 보 허물기, 보 해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남의 일인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남의 일이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거 잘 하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4대강 보의 부분적인 해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요구가 국민적 요구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그게 제가 알고 보니까 4대강 재자연화 추진위원회라는 시민단체들이예요. 그분들은 국민들이 뽑은 국민들의 대표가 아니고 일부 환경운동에 아주 경도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번의 붉은 수돗물 사태 이것도 말이지요 단순히 국토부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 도시의 기반시설 중의 하나예요. 낡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후화된 상수관, 지난번에 통신구 화재, 아현동 화재사고로도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꼈는데 이번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다 연계된 것입니다. 지난번 고양의 가스저장소 화재 이런 것들이 관리 소홀, 그것이 예를 들면 산자부가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다 도시의 기반·공급 시설들입니다. 공동구나 가스시설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이 모든 것들이요 국토계획·도시계획의 일환이고 국토부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부처 개별적으로 맡겨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계가 안 되고 전체적인 이런…… 아까 해상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국가가 컨트롤타워 없이 그저 남의 일 남의 일 하다 보니까 각자 따로 놀다가 우리가 지난번 세월호의 비참한 참극을 당한 것 아닙니까? 제2, 제3의 세월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포동 건물 현장 붕괴사고도 똑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명심하셔서 장관님 제발 남의 일, 내 일이 아니다 남 탓 이런 것 절대 하지 마세요. 국무위원의 일부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 호소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후 SOC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선호 차관님께서 정부의 TF 팀장을 맡으셔서 각 부처와 함께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공공 부문에 5조, 민간에 3조, 매년 8조씩 앞으로 4년 동안 노후 SOC 기반시설의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만약에 제 순서라면 자료요구를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자료요구…… 알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이 자료는 언제 주시나요, 이강래 사장님?

○위원장대리 박덕흠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까 민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사회에서는 저희가 한 번도 김포-파주 관련된 안전에 관해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달 열리는 이사회 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속기록으로 남기지만 매주 하는 임원회의에 대해서는 자료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세세한 기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욱 위원 그런데 아까 왜 있다고 그러셨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까 제가 이사회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이사회 회의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사회?

○민경욱 위원 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임원회의를 저는 아까 이사회로 받아들여서 그랬는데 매주 하는 저희 임원회의에서는, 매주 합니다. 그런데 그 임원회의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속기를 하거나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임원회의에서 저희는 심사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회의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그러면 그 이사회 속기록이 다 있으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좀 갖다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을 보면 아는 거니까 그것을 주시면 그래도……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희가 필요하면 지난 달 이사회 회의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 임원회의 시에 특정업체 설계가, 진출입 시설 등에 대해서 설계가 잘 됐다고 유도했다라는 투서가 와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회의록을……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거기에 투서를 누가 했는지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로공사 직원인지 실제로 확인을 하고 거기 투서한 사람이 정말 맞는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투서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아주 꿈도 크시군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우리 임원회의에서 한 번도……

○**민경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하고 있어요.

꿈도 크시다고요. 불리한 걸 했는데 제가 이름을 순순히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지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까 도로공사 직원이 실명으로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경욱 위원** 실명이 있어요, 실명이 있지만 어떻게 그걸 밝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임원회의에서 준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임원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시기를 바라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욱 위원** 저한테 전달된 투서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신변에 위협이 생기지요. 저런 일이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실명 적시하면서 보내온 것인데,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김포-파주 간의 고속도로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차원의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이따 장관 해 주시고요.

아까 이강래 사장 말씀하시면서 지금 선정된 업체는 여기 저기 자유로 연결이나 파주시와의 연결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된 곳이 대안이 없고 선정되지 못한 곳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취지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러니까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을 뽑았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희 심사 과정은 전부 전 과정 공개를 합니다. 전 과정 다 공개를 해서 심사과정에 관한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의혹 없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경욱 위원** 투명하게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투명한 것은 좋은데 잘못됐다는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도로공사가 뭐 하러 거기 있습니까? 올바른 선정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쉽게도……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안타깝지만 결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주시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민경욱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아셨습니까? 그런 연결도로나 부족하다는 것을 사전에는 아셨겠지요, 이걸 다 제출하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이 부분은 원래 교량으로 되어 있던 것이……

○민경욱 위원 사전에 아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아셨느냐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사전에……

○민경욱 위원 사전에 아신 거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알았습니다.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알았으면 그게 나중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고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정업체가 연결이 잘 됐다고 임원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잘못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쭙는 거예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니요, 임원회의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사장님이 그걸 아신다면 그것도 사후에 안 게 아니고 사전에 아셨다면 왜 문제 제기를 안 해서 지금 파주시나 이런 데서 불평을 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희는 심사 관련된 부분은 심사가 시작되면 일체 누구도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민경욱 위원 아니, 공개적인 발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장님께서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이 문제가 있다, 연결도로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셨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민경욱 위원 우려했네. 우려를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려를 전달하셨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한 번도, 저희는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공개적인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니요, 아니요.

○민경욱 위원 공개적인 자리는 어떤 것이고 비공개적인 자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임원회의 같은 것은 회의록도 작성을 안 하니까 비공개된 자리네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지금 말씀을 왜곡하고 계십니다.

○민경욱 위원 뭐라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희는, 저는 단 한 번도 특정업체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아니, 말씀을 하세요. 지금 공개된 장소예요, 안 공개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이 계속 공개된 것……

왜곡된 걸 뭘 한다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희 심사 과정에서……

○민경욱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되긴 뭐가 왜곡돼요? 차근차근히 올바른 발음으로 얘기하고 있구먼!

아까 그 얘기도 못 알아들었어요? 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이야기해 본 적 없다는 말입니다.

○민경욱 위원 임원회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사회로 알아들어 가지고 회의록을 못 줍니까?

다시 한번 여쭙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본부장과 부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바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제가 종용한 바는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민경욱 위원 뭐라고요. 얘기해 보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제가 아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민경욱 위원 저한테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경욱 위원 어허! 아니, 3선 의원 하신 분이 지금 헌법기관을 그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월급을 어디서 받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인사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민경욱 위원 인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인사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그럴 일이 아닙니다.

○민경욱 위원 뭐라고요?

○위원장대리 박덕흠 아까 김상훈 위원한테 말

씀하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민경욱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까 한 것 그대로입니다.

○민경욱 위원 그대로라니요? 그러니까 종용한 바 없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종용한 바 없는데 그냥 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사표를 내게 됐는데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서 사표를 가져왔고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검토해서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경욱 위원 3선 의원 하시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사장님을 맡고서 취재를 하던 기자입니다. 제가 전담하던 기자예요.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출처를 알고 싶어 하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출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 투서에는 ‘이강래 사장은 본인 뜻대로 특정 업체가 안 되고 비밀이 외부에 유출된 것에 대하여 노발대발하여 관련자들을 추궁하여 관련자들 다수가 사의 표명했으며, 건설본부장은 결국 사직하고 부사장은 사직서 반려시키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장이지요. 물론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정황, 사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금 중계가 되든 안 되든 기자들의 보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종용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연락을 하게 될 테니까 제가 후속 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흠 사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선배님 되시는데 그렇게 위원이 얘기했으면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냥 그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장관님, 제가 세입자 피해 문제를 오전 질의에서 했는데 작년 국감에서 얘기했던 지역주택조합 주택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여쭙보겠습니다.

관련된 법안을 제가 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금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피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최근에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기도 하고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요. 1차관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박덕흠 간사, 윤관석 간사와 사회교대)

○박홍근 위원 예.

차관님, 2010년부터 18년까지 전국에 446곳이 조합 인가가 나서, 한 28만 세대 되니까 결코 적지 않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 단계까지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곳이 진행되었거나 중간에 피해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어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십니까? 제 지역에도 있고 지금 서울 전역에 많은데 명칭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구성하지만 실제로는 추진위원회고, 그래서 이 업무대행사 대표가 토지 사용 승낙률을 37% 정도 갖고 있는데 80%에 이른다고 속이면서 한 154억의 분담금을 건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선물옵션 투자에 60억, 실내 경매에 21억, 무슨 변호사 선임 비용, 아들 임대료 대납 2억, 90억을 횡령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오늘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이분들이 광화문에 햇불 들고 들어서겠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정부의 인식이 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제가 낸 법안이 물론 통과되면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이분들은 아예 폐지해 달라는 것인데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폐지가 아닌 자격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엄격히 한 것입니다마는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좀 하는 겁니다.

우선 조합원 모집률하고 토지 사용 승낙률, 바로 여기에서 그동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 넣었다가 이런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는 정부가……

현행법에 보면 ‘행정청이 조합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예정사업지의 조합원 모집이나 또는 토지사용승낙서—권원 확보율이지요—여기에 대해서 공시를 해준다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굳이 법까지 안 고쳐도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 제안이고요.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도 그 주체에 그동안, 주택법에 보면 죽 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어떻게 해서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장 등이 정보공개를 거부해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나오는 거지요. 더구나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들은 정보공개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공개해도 제재를 안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계속 누적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에다가 이 업무대행자를 포함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국민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지자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부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2017년도 6월에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체는 2017년도 6월 이전에 설립되었더라도 모집을 하면 신고하라고 했는데 실제 신고하지 않고 모집 활동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목동의 모 조합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모집을 시작해도 현재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이 어떻고 그리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토지 확보율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향후에 점검할 것인지 이것을 법률 개정과 별개로 저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피해를 그나마 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분들 진짜 4000만 원, 8000만 원 자기 전 재산

다 털어 넣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두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발생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박홍근 위원님께서 주택법 개정안 관련해서 발의해 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법 개정까지 하지 않더라도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이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 확보 현황에 대한 정보 공시 방안은 국토부령을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인데요, 관련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대행사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게 저희의 법리적인 판단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하게 하고, 필요시에 수사기관에 다다 엄정하게 고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홍근 위원** 1분만 좀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왕 토론회를 좀 했기 때문에 장관님께 하나만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여쭙보겠습니다.

승객과 직원들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교통 관제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앞서서…… 이분들이 월평균 230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 근로자들보다 한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은 아까 송석준 위원님하고 제가 공동 주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인력 추가 증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 관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전체 640명인데 이 중에 350명만 관제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64%밖에 지금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겁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나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항공안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특수성이 있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조사 문제도 있고요, 전문성이 되게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지금 그게 다 합쳐져 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이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장관님께서…… 항공 사고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기구 시스템이 진짜 효율적인지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미국이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항공안전 국가라고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인력 수급과 운영의 경직성이 강한 공무원들 관료조직으로 이것을 관리하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해서 관제 문제도 그렇고 사고에 대한 어떤 대처나 사후 조사도 해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최근 5년 동안 관제 인력을 122명 정도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충원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항공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안전 또 관제 하시는 분들의 공공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님,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장관님은 집값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박덕흠 위원 현재 가격의 추세로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제가 다음……

PPT 한번 들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가들의 의견은, 신도시 발표 후 조사한 KDI 경제 전망에서 1년 뒤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문가가 오히려 늘었다, 16%였는데 지금은 53%로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덕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MICE 지구를 일산에 지정하려 한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요. 일산에는 이미 킨텍스가 있고요. 지금 일산에 킨텍스 1·2가 있는데요. 킨텍스 3을 하는 것은 99년부터 계획이 되었다가 16년 7월 박근혜정부 때 산자부에서 올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사업을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이지 원래 일산은 MICE 산업단지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규모가 한 3조 원 된다는 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요, 일산 킨텍스는 4500억 정도 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그 얘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산에 킨텍스 제3단지를 하는 것은 원래 계획되어 있는 일입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것은 한 5000억 정도 든다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덕흠 위원 제 얘기는 한 3조 원 규모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사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박덕흠 위원 ‘테쿰’이라는 회사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박덕흠 위원 도로공사에 커피 머신을 납품했지요, 판매를?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지금 그 부분 관련

된 것은 전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박덕흠 위원 아니, 그게 수사 중인 것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 커피 머신 산 게 얼마에 샀나 아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담당 직원 없습니까, 이것 아시는 분?

○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장 신동희 도로공사 기획실장입니다.

○박덕흠 위원 얼마에 구매했어요, 도로공사에서?

○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장 신동희 저희 공사에서 구매한 것은 1대를……

○박덕흠 위원 글썄, 1개, 얼마?

○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장 신동희 99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99만 원?

○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장 신동희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ex-cafe 청년 취약계층 사장님들에게는 대당 150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했답니다.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지요. 그래서 이게 또 의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쯤 되면 폭리를 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도 법적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톨게이트 수납원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정규직화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사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기억 안 납니다.

○박덕흠 위원 그때는 사장님이 아니셨나, 이강래 사장이?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제가 위원님들 개개인 질문 내용을 다 기억하는 편이 못 됩니다.

○박덕흠 위원 아이, 사장님 그래도 이것 직접 고용이니 정규직이니 하는 것을 기억을 못 하시면…… 지금 이 문제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크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말이 아니지요.

사장님, 그러면 자격이 되십니까? 제가 이런 말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또 선배님 입장에서.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제가 박덕흠 위원님께서 그때 직접 고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저는 ‘직접 고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갖고 그때 질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일 자로 자회사로 간 직원들에게 축하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사실입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한 50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죽고 사느냐 하는 판국인데 이렇게 100만 원씩 주는 것이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에 동의한 사람들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노노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밖에 나와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팅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그분들한테 새로운 지위나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IMF 이후에 불가피하게 외주 업체에 내몰렸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직원들을 원위치로 이렇게 돌려놓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당히……

또 문재인 정부 또 대통령께서 정규직화를 내걸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사장님도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장관님도 대통령께서 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하는 정도인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화 문제는, 저희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할 때 정부 차원에서 몇 가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은 본사에 직고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노·사·전 협의를 통해서 자회사로 직고용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직고용해서 연장도 시켜 주고 임금인상도 하고, 또 아까 사장님

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모두 다 본사 직고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부 전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규모나 이런 면에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그리고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생명·안전에 관련된 분야만 본사 직고용을 하고 나머지 분야 상시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자회사 직고용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장관님 말씀대로 노사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당시 노·사·전 합의를 할 때 민주노총 쪽에서 반대를 했고 그분들은 지금 밖에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정부가 정한 원칙을……

○박덕흠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비정규직인 분들은 전부 다 정규직이 되는 줄 알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애당초에 뭔가 홍보를 잘 했으면 좀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뭔가 좀 잘못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희들 수고는 하겠지만요, 그 첫째 가을에 이 원칙을 정해서 이미 각 회사별로 합의를 해서 다 발표를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본사 직고용할 사람은 본사 직고용으로 정리하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직고용할 사람은 자회사 직고용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게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합의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덕흠 위원 지금 국토부 공공기관에서도 9개 정도는 다 직고용을 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러니까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본사 직고용을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꼭 생명·안전만이 아니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을 본사 직고용하느냐 자회사 직고용하느냐 하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저희들이……

○박덕흠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직고용한 현황을.

○위원장대리 윤관석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을 생명하고 안전에 관계된 것인지 구분해서 보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박덕흠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LH 사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LH 사장입니다.

○서형수 위원 지금 LH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173조 됩니다.

○서형수 위원 173조 같으면 재벌 기업집단 순서대로 해서 몇 번째 정도 되는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삼성이 414조, 현대차가 223조, SK가 218조고 4위 LG가 129조기 때문에 LG보다도 약 한 50조가 많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의 설립 목적을 보니까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기관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결국 공공기관이라는 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우리가 비교했던 다른 재벌들은 이윤이 목적이지만.

LH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LH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2009년에 설립됐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통합된 것

은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통합돼서 그때부터 사실은 현재 결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10년 됐습니다.

○서형수 위원 보니까 실제로 한 8년 남짓 됐더라고요. 그사이에 이익잉여금이 지금 14.5조. 14조 5000억입니다, 이익잉여금 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서형수 위원 작년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2조, 2017년에 2조 7000, 2016년에 2조 2000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서 이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적자도 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흑자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경기 변화에 따라서 계속 오르내림이 있는데 최근 2014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보니까 2009년부터 흑자 규모가 제일 적을 때가 2010년 5100억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면 다 1조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재정 운영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LH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토지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에서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민간에게 개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사유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개발하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낙후지역 개발이나 공공임대주택 또는 저소득층의 지원 등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서형수 위원 아니, 그 비용도 원가에 들어갑니다. 그 비용까지 산정하고 나서 그만큼 이익이 나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서형수 위원 우선 오늘 사업현황 보고자료를 보더라도, 6쪽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니까 현재 사업 총량이 280개 지구에 총사업비가 224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서형수 위원 그 224조 중에서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공공주택은 불과 19조 7000억입니다. 보금자리가 52조 8000, 택지가 76조 8000. 그러니까 지금 전체 총사업비 224조 중에서 공공주택 부분, 아까 말한 전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8.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그 택지 개발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LH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의 공공주택이고, 택지개발사업 한 후에 LH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게 쥘서 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인 사업의 구성 자체가 규모도 그렇지만 사실 보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주택, 아까 말한 공익사업 자체에 투입되는 재원보다는 그 중간 경로에 워낙 많이 치중해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과거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있을 때 토지공사가 주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신도시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금년에도 224조 중에서 택지가 76조 8000억이라니까요. 보금자리가 52조 8000억이에요. 세종·혁신이 16조고, 산업·경제 27.2조. 실제로 공공주택은 지금 19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부 224조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보금자리주택도 그 자체가 이름은 따로 되어 있지만 보금자리주택도 결국 공공주택입니다. 이름을 달리 해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것이지만 세종시도 세종시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주택 중심입니다.

○서형수 위원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SH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3년 근무했습니다.

○서형수 위원 일단 SH는……
1분만……

SH 자산 규모가 한 22조 정도 되더라요. 그러니까 한 8분의 1 정도 되더라도 SH에서 전체적인 사업 구성이라든지 사업 진행 방식 그다음에 조직운영 방식 자체에 나름대로 접목할 부분은 좀 접목해서 사업구성이라든지 사업의 추진방식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제가 계량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조직운영 원리라든지 구체적인 사업 구성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 자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제로에너지 주택, 모듈러 주택을 비롯한 신개념 주택 모델을 확산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것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실험하기도 하고 또 실제 실현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3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동안 주택의 신속한 공급, 저렴한 공급에 초점을 맞췄던 데 비해서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 주택, 사회 주택 또는 에너지 제로 주택, 기타 스마트시티 같은 특화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 계획대로 지금 연구와 사업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종성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변창흠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총 13만 9681건에 달합니다. 이 같은 청약 부적격자 중에서는 실수나 오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데 그래서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한국감정원에서는 청약 전 부적격을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되면 실수

나 오기로 청약 부적격자가 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에서도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희희망타운 등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LH 자체 청약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면 LH도 감정원처럼 사전검증기능 도입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이 부적격자를 줄여야 할 텐데 LH는 아직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청약 시스템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 입력하든지 해서 당첨되는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7~12월까지 그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본 위원은 LH가 지금이라도 서민들이 청약제도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임종성 위원 사장님께서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 의원실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리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임대사업에 있어 임차인이 계약 만기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런 경우가 생기면 LH는 보험 회사에 보증을 청구한 뒤에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평균 6개월이나 걸립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지난 3년간 이런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491명인데,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신청하는 대부분은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으로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이사 갈 곳의 전세금 마련에도 상당히 곤란을 겪

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6개월이나 방치하게 되면 무책임한 태도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인 경우에 파산했거나 주소 불명이거나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그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을 청구하는데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기간을 줄이도록 계속 보증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데 반면에 사장님께서 SH에서 몸담고 계실 때 이런 문제 인식해서 가지고 개선하고자 지난 4월에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한 적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과거 일이라서 지금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것 PPT 없나? 우리 직원이 없네……

SH에 사장님께서 건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건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마음이 바뀌신 건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 위원님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는데 다시 한번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장관님, 그때 국토부 역시 LH하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보호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거든요. SH가 국토부에 보낸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서 국토부는 SH의 단순 민원사항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임종성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임차인을 또다시 주거불안정으로 모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에서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다음 질의는 이후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삼 위원** 장관님, 올 초에 전국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 또 예타 대상 사업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 저희 지역도 물론 연관이 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한 그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KDI에서 지금 각 사업들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일부 반영할 수 있게 되는데 아마 충북에서는 지금 KDI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성 심사를.

○**이후삼 위원** 아니, 국토부와 지금 같이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KDI로 가서 거기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후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국토부의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같이 그럴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지요,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이후삼 위원** 그래서 국토부의 의견을 좀…… 주고받는 내용이 있으면 혹시 알 수 있겠나 싶은 요지의 질문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사업 적격성 심사를 KDI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소관 과들이 있습니다, 철도는 철도, 도로는 도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별도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특별히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혹시 간단하게 중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따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이요?

○**이후삼 위원** 아니, 지금 아니라도 따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예,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그리고 도로 위의 낙하물 사고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낙하물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 피해자들이 전적으로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논의를 좀 했는데 이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로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5년간 사망사고도 3명, 37명이 다치고, 국도나 지방도 포함하면 아마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뺑소니 사고나 그리고 여타의 사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원인자가 발견이 되면 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낙하물 사고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서 지금 빠져 있어서 순전히 피해자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보면 이 낙하물 사고 원인제공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과 관련된 피해만이라도 이 보장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정부에서 일단은 보장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정부 보장사업은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피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법률안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재부하고 경찰 등 관계 기관하고 협의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 단독으로는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관계 부처와 협의한 이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올해 5월에 기재부가 발간한 기금준치평가보고서 보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과다하여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후삼 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이 기금과 관련해서도 같이 좀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해 주면 국민들의

부담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라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이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권병윤 이사장님, 김포 도시철도가 원래 지난해 11월에 개통하기로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 7월로 연기가 되었는데 그것조차 또 안전진단 때문에 연기가 된다고 발표가 나 가지고 김포시가 지금 온통 난리 아닌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5월 27일 날, 얼마 안 됐어요. 그때 김포시에다 자료 요구했는데 김포 도시철도 개통 준비 상황, 안전점검 결과 이것 다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없다. 그래서 7월 27일 정상 개통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그 기간 중간에 시험운전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도 이때도 저한테 이런 답변을 했어요, 김포시가.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믿지를 못하겠거든요.

이게 열차 떨림현상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주원인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저희도 지금 김포시에서 종합…… 영업시운전을 본 결과 열차 떨림현상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앞쪽에서……

○**홍철호 위원** 상하좌우 그렇게 다 떨립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일단 승차감과 주행 안전성도 영향이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상하좌우 떨림현상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두 가지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떨림현상하고 상하좌우……

○**홍철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시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떨려서 승차감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주행 안전성, 승차감하고……

○**홍철호 위원** 안전성하고 승차감하고 다 안 좋

다는 것이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운** 예.

○**홍철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 승차감이야 조금 양보할 수 있지만 안전성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운**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 김포시 발표로는 이것을 이제 차륜을 삭제해서……

나는 ‘삭정’이 뭐가 했더니 한쪽을 깎아 낸다고 그래요?

편마모가 나서 삭제해서 해 봤더니 2만km 넘게 했는데도 이제 괜찮더라,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운** 지금 저희가 본 바로는 김포시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만 5000~2만km가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정도 지나면 이런 현상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홍철호 위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지요? 만약에 이 방법을 택해 가지고 김포시가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운** 7월 3일자로 최종적으로 김포시에서 의견이, 시험운행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인은 그런 것 같다. 한쪽이 편마모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한쪽까지도 깎아서 서로 맞추겠다’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정상 가동 승인을 해 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운**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단순히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홍철호 위원** 사례가 없습니까, 이런 사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인지를 저희가 보겠다는 겁니다.

○**홍철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무한정 세워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달랑 2량짜리 가지고도 이렇게 안전성이 담보 못 되어 가지고 개통 날짜를 계속 이렇게 지연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2개월 정도 조사기간이면 되겠다고 김포시가 또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희망고문이 시작됐어요. 보시기에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조사 끝날 것 같습니까, 원인하고 대책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운** 이 문제를 김포시에서는 작년 말에 인지를 했고요. 저희는……

○**홍철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한국에 검사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철도연구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운**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종합시험운전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운행 여부를 허락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이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제시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종합시험운행을 통해서 그 안전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홍철호 위원** 아니, 그러면……

저 1분만 주시지요, 안 할게요.

그러면 말이지요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기관들이 이것 좀 함께…… 김포시가 자꾸 이렇게 조급하게 또 ‘두 달이면 충분할 것 같다’ 이런 발표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차관님이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마모가 원인이 맞고요. 편마모가 발생한 원인은 곡선 구간에서 편마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홍철호 위원** 그건 충분히 얘기가 됐고. 제 얘기는 김포시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국토부가 해야 될 거다, 자꾸 손 놓고 있다가 ‘또 놀고 있네’, 쉽게 얘기하면 ‘안 될 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너무 오래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속히 개통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누가 담당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2차관 소관입니다.

○**홍철호 위원** 차관님 담당이시잖아요. 오늘 그런 의지를…… 2개월 안에 또 하겠다고 김포시가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발표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좀 더 해야 되겠다든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일단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운행계획 같은 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마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방향을 교체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입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워치(watch)를 하면서 개입을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예, 개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두 달 이렇게 해서 나는 조금하다고 보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위원** 김현미 장관님,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안정성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咸珍圭 위원** 그렇지요,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바라던 걸 답변하셨는데.

시흥·광명지구라고 아시지요, 시흥·광명지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시흥하고 광명 중간에 끼어 있는 시흥·광명지구라고 있어요. 그게 한 525만 평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MB 정부 때 공공택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 놓고, 뭐 저희들도 좀 그렇지만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제가 볼 때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정책이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은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막 흐르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자세한 건 1차관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咸珍圭 위원** 1차관, 아세요, 이 내용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정부 생각이 뭐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거기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하고요 또 도시개발사업 주민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현미 장관이 정확하게 정부정책 신뢰성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개인 재산권을 525만 평이나,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MB 정부 시절에 GB 해제해서 택지지구 지정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어요, 다시 묶으려고 그러는 것 제가 반대해서. 지금 벌써 4~5년 지나가고 있어요. 10년 후에 풀어 줘야 돼요. 이걸 놔두고 다른 데 가서 3기 신도시 지정한다고 그러고.

525만 평 광명, KTX가 지나가고 얼마나 요지입니까, 그 지역이?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컨대는 우리 정부든 저쪽 정부든 남이 지정했던 거니까 신선(fresh)한 맛이 없는 거예요. 내 브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암만 갖다 얹어 버려도.

지금 장관님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얘기하셨잖아요. 이것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무슨 지역이……

○**咸珍圭 위원** 관심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저희들도 다 검토하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咸珍圭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정권 끝날 때쯤 돼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추측한 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 뭐 발표할 겁니다. 뭘 합니까, 하기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현 정부의 입장을 저한테 표명해 주시고. 제가 대정부질문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1차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산업단지, 유통단지, R&D 연구센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장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2381개가 있어요. 이 공장 이전 대책 수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산단 조성하는 데 한 30만 평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절반 정도, 15만 평, 16만 평 되나요? 이것 다 수용 못 해요.

그리고 지금 동 업체에 해당되는 이전 대상 면적이 42만 평이에요. 기존에 희망하는 사람들 가는 것만 해도 42만 평이라고. 그러면 30만 평 갖고 나머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온갖 택지는 다 지정하고 있으면서…… 광명의 백재현 의원이 보금자리특별법이라는 것을 지정했어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이예요. 저도 머리 아파 죽겠어요. 왜? LH에서 택지개발 하면 옛날에는 보상만 받으면 공장이든 민간이든 그냥 나가 버리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어딘가 대체부지를 선정해 줘야 돼요. 지방의원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가라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30만 평 가지는 부족하다. 우리 지역에다가 은계지구, 장현지구, 목감지구, 하중지구, 거모지구…… 아주 LH 본사를 우리 지역으로 갖고 오세요. 전철을 깔아 주나 뭘 깔아 주나……

그래서 산업단지 면적을 한 60만 평, 70만 평으로 더 늘리세요.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장관님, 소사-원시선, 서해선 개통할 때 우리 지역에 나하고 같이 그 개통식에 참여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제가 그때 역사 하나 얘기했었지요, 하중역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그 앞에다가 택지개발을 또 했어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지금 그 하중역사가 장래역으로 해서 화물역사로 되어 있는데 기왕 택지지구까지 그 앞에다 바로 지정을 했으니 이제 탄력을 받을 거예요. 제가 용역은 1억 편성했었는데, 그래서 이것 좀 챙기셔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택지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헌법에 보면 정당한 보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당한 보상이 아니야. 100만 원 가는 것 그냥 40만 원, 50만 원 주는 거야. 그게 끝

이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보상법도 한번 손질 좀 하시고.

거기 택지지구 기왕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셨으니까 그것 좀 살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물역사 하는 것은 그냥 비용 부담하세요, 거기서. 그렇지만 화물역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나오는 지상구간 아니에요? 그러면 택지개발까지 했으면 더 탄력이 붙으니까 사람을 내릴 수 있어야지요.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역사 있지요, 신안산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다음 달에 착공해요, 안 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다음 달이면 8월이지요?

○咸珍圭 위원 예, 8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착공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咸珍圭 위원 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그것 시흥에서 좀 하세요, 시흥에서. 시흥에 임대주택 다 갖다 짓고 제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들끼리 합의해서 단일한 장소를 주시면……

○咸珍圭 위원 뭘 합의를 해요, 임대주택은 우리한테 다 갖다 짓고 교통 인프라는 하나도 구축을 안 해 주고. 또 김현미 장관이 지역구도 하셨으니까 여기서 하시고.

매화역사도 그린벨트, 오늘도 제가 국토위하고 대책회의 가졌지만 그것 70만~90만 정도 입방미터, 약 한 25만 평 되나요? 그것도 잘 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매화역사가 장래역이 아닌 확정적 역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 의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면 안 될까요, 아무도 없는데?

이건 2차관이 하시나요, 철도?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예.

○咸珍圭 위원 인천 이것 서해선에 연결시키는 것 있지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선?

그것하고, 제2경인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예.

○咸珍圭 위원 그것 참 기가 막혀요. 제2경인선 송도에서 우리 시흥 거쳐 가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노선을 확정하려면 미리…… 우리 시흥시 구간을 통과하는데 미리 시흥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지 속전속결로, 내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국토부 출신이 지역의원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왜 시흥시 의견을 안 구해요?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 예타 들어갔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일단 예타를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咸珍圭 위원 내가 하는 건 10년 해 달래도 안 해 주면서. 이것 국정감사 때 내가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속전속결이야, 그냥. 쾌속으로 가 버려. 그것 가능한 얘기에요? 다른 걸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선을 좀 봐야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예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나 대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래서 은계역 신설하는 것도 우리 시흥시하고 협의 좀 하시고.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이 지금 용역 중에 있던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없앨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경욱 그 부분도 같이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월곶-관교선 말이에요. 장관님, 신안산선, 광명 KTX 시흥시 전까지 그 구간 공유하고 있지요, 9.8km?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그런데 한 시 구간에서 죽보가 다르다고 신안산선은 다음 달에 착공하면서 월곶-관교선은 내후년에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월곶-관교선이 뭔지 알게 뭐고 신안산선이 알게 뭐예요? 우리 구간, 내 지역에서 조정식 의원 지하 그것 한 3~4km뿐이 안 될 거예요, 4~5km. 그것 착공하도록 같이 맞추세요, 그것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맞춰 보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렇게 좀 같이, 그쪽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살펴보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추가질의 의사를 밝히시면 기존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추가질의 3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자 다음, 추가질의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이강래 사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에서 감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제가 드렸고요.

지금 임원회의의 회의록이 없다고 하면……

이사회 회의록은 있다고 그러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있으면 중요한 사안이니까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앞뒤 관계가 궁금하니까 이사회 회의록은 꼭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실 수 있으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2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는 연결통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대안이 없다, 1개 업체는 그게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도로공사 사장님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셨다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그 사실조차 말씀을 안 하시니까 좋지 않은 결과로 선정이 됐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논리에 따른다면?

그런데 논의 기구에 맡겼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서에 관계없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막을 수 있는 기회와 권능이 있었는데.

그러면 통로를 잘 만들어 놓은 업체에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업체 선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로 연결이나 파주시 접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자유로에 완벽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오고 또 1개 업체는 자유로가 아니라 지방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왔는데 나머지 1개 업체는 양쪽 다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경욱 위원 대안이 없는 곳이 지금 낙찰이 됐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 사실은 진전공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음에 끝나고 나면 과주시에서 크게 문제 삼을 텐데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했는데……

○민경욱 위원 그렇지요?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는 고민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이것을 표출하지 않았습시다, 저희 규정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민경욱 위원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저희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경욱 위원 그게 고민 사항으로 끝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혹시 HUG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예.

○민경욱 위원 ‘황제 승용차’ 얘기가 나오던데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업무용 카니발 차량 시트에 회사 돈을 무려 1130만 원을 들여서 비행기 비즈니스석처럼 개조를 했는데 왜 이런 것을 하셨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관리법상에서 문제없는 상태까지만 했고요.

○민경욱 위원 그래서 1100……

아, 그것 넘으면 더 많이 들 뻔 했는데 1130만 원밖에 안 들었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3년을 쓰면 제네시스보다 훨씬 돈을 아낄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경욱 위원 저도 카니발을 탑니다. 그냥 타도 돼요. 그런데 1130만 원을 들여서 시트를 고쳤어야 됩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관리법상의 문제가 없는 상태로만 수리를 해서 썼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경욱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차였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차였으면, 차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130만 원…… 저도 장거리 뺏니다. 그래도 그냥 할 만한테 이것은 본인의 돈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공복이면 혈세에 대해서 아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최고급 가죽시트, 마사지 기능이 있는 이 해당 시트를 보고 별일이 아닌데 왜 국회의원이 질문하느냐 이런 태도네요, 제가 볼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그렇지 않습니다. 마사지 기능은 없고요. 사실은 그렇게 계속 오보가……

○민경욱 위원 그것도 없는데 1130만 원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사장실에다가 200만 원대 식탁세트, 400만 원 노트북, 300만 원대 침대. 또 여의도 지사 사장실에는 980만 원을 들여서 방음공사 진행했는데 이게 하나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그냥 일반적으로 오래된 것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음은 제가 아니라 같이 있는 임원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다 들린다고 해서 방음공사를 했습니다.

○민경욱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장관님, 제가 을지로위원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중소기업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 쪽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해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홍근 위원** 그때 ‘경쟁을 촉진해서 부품가격을 인하한다.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인다.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유로 내걸고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정부도 그 이후에 사용 특약을 통해서 대체부품 사용 소비자들한테는 OEM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해 주겠다, 또 디자인권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증대체부품 사용이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현황은 생략하고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여전히 디자인권 소송에 대한 부담을 엄청 크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간담회를 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과도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기간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정작 자기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소송을 당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또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발에 선뜻 못 나서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한번 중재로 나서서 기왕 지난번에 MOU 맺은 것도 있고 하니까 완성차 업체가 부품 업체의 디자인권에 대한 소송을 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담은 양해각서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다시 한번 체결을 해 달라, 이렇게 중재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일단 자동차산업협회 등 완성차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MOU를 삼자가 맺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챙겨 주시면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소비 증가 관련해서는요 이것을 정부가 홍보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소비자나 정비업자한테 인증대체부품을 쓰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부터 인증부품제품을 적극 사용을 하는 게 맞다 싶어요.

작년 말에 관용차량이 9만 대가 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공기업, 유관기관까지 치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에 있는 차량부

터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에 그런 협의를 국토부가 나서 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협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관용차량이나 공공기관 차량에다가 국토부가 소관하고 있는 택시업계, 화물업계, 공제조합 이런 데까지 협조를 구하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면서 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이강래 사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파주-김포 간 2공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뉘앙스가 이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런데 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자유로 그리고 또 파주 신도시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 부분은……

○**박덕흠 위원** 저는 지금 사장님이 돈을 받고 그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안 하고 단지 사장님 생각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쪽 부근에 있는 분들의 요구도 있었을 테고, ‘이런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사장님의 머리에 그게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조금, 하여튼 내 생각하고 좀 틀리게 낙찰이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장님 생각은 연결도로가 다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장난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파주시나 자유로의 접근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점수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파주시 관련된 부분이 잘못되면……

○박덕흠 위원 아니, 아까 사장님이 자꾸만 파주시 얘기하고 하시니까 파주시에 연결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서 이제 승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승복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걸 쪽 보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될게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심사위원들 생각하고 사장님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들한테 누가 백브리핑이나 이런 부분이 그 회사에서 좀 결여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점수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사장님 몰래 직원들 입장에서 좀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부장하고 부사장의 사표를 받으셨지요. 그래 가지고 한 명은 수리하고 한 명은 반려를 하셨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리고 또 아니 뎀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화를 냈더라도…… 화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접근로를 만드는 게 좋은데 안 되어 있으니까 화날 만하지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지들보다도 경험이 더 많고 또 3선 하셨잖아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화를 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명이 좀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자꾸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명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을 특정 업체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어디 옆두에 두었던 특정 업체가 안 돼서 했다라는 식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구요.

제 입장에서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파주시나 자유로의 접근성 관련된 부분도 중요요인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덕흠 위원 그 생각을 갖고 계셨으니까…… 제가 특정 업체를 봐주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사장님께서 그런 생각은 없는데 단지 일 때문에, 접근로 접근성 때문에 그 생각을 갖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불거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거기에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누가 투서를 했다고 하는데 투서 내용 자체가 사실은 많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장관님, 아침에 인사말씀 중에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고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저희가 교통사고 줄이기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고에서 특히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삼아서 저희가 시스템 비계 설치하는 것을 또 하고 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는 7월부터 저희가 집계를 해 봐야 되는데 4월 이후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사망자 중에서 사실 건설현장 사망자가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절반이고…… .

○서형수 위원 딱 절반이지요? 작년에 485명인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서형수 위원 이게 최근 5년간 거의 한 430명에서 500명 사이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서형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망사고 중

에서 67%, 그러니까 485명 중에서 323명이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체형 작업발판은 공공부문은 강제를 하시지만 소형 부분은 강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전체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인데 이 정도의 대책 가지고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특단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없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시스템 비계를 저희가 공공은 의무화 했었고요. 민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는 지원방안이 있고 저희 부가 공제조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고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에 가감제 이런 점수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강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실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서형수 위원**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우리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안전 문제, 우리 질의하듯이 이 문제는 단순하게 몇 가지 대안—한 세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저는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특단의 준비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장관님,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임 김정렬 차관님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국토위 교통소위 법안심사에서 카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출퇴근 각 2시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여야가 택시월급제를 도입하는 데도 큰 의견 차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

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상훈 위원** 다만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쪽에서 급여를 조달하는 데 따른 부족 재원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재정 지원에 대한 그런 의지는 분명히 없어 보입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없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렇다면 노사 간의 문제가 조정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될 근무시간 수, 그러니까 실 근무시간 수에 대한 노측과의 명확한 중재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결하고 월급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건의서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카풀을 도입해야 된다는 제일 첫 번째 필요성은 사실은 출퇴근시간 교통혼잡지역이라고 여겨지는 서울 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택시월급제를 도입해야 된다면 국토부가 사회적 대타협 합의를 이뤄냈던 과정 중에 약속한 노와 사측의 택시월급제에 대한 중재 합의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택시월급제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다 한 것이지요. 이제 와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합의를 뒤집는 이야기이고요. 저희가 3월 7일 날 사회적 합의를 월급제로 한다고 했고요.

○**김상훈 위원** 합의를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상훈 위원** 합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다음에 4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월급제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소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정하는 것은 이제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월급제에 대한 법안 심의할 때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법안은 일률적으로 규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풀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과 노사 간의 요구사항은 그렇게 배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측도 인정할 수 있는 택시월급제, 노측도 절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택시월급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지 여부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은 지금 노동법이 전국적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최저……

○**김상훈 위원** 저번에 김정렬 차관은 택시의 영업이익을 각 지역별로 조사를 했는데 일부 지역은 시행 유예를 하고 다른 지역은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접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노사가 국토부가 중재해서 협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도출 안 되었기 때문에 사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중재 노력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사측이 월급제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노사 간에 중재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법원 판결이 4월 18일 날 최소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노사 그다음에 국토부가 합의했던 합의문을 한번 나중에,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보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거기에는 국토부가 합의를 했지만 아무리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선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그것은 월급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아마 내일모레 법안심사소위 하실 거니까 그때 또 하시도록 하지요.

○**위원장 박순자**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장관님, 끝날 때 다 되어 가니까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사실은 청약 이런 것 하면 로또나 마찬가지로 라는 인식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안 들리는데요.

○**박재호 위원** 주택청약을 하면 로또하고 똑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난 사실이지만 신혼부부, 다자녀특별공급에서 임신 진단서, 입양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이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압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거의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83건만 조사를 했는데도 10%예요. 한참 봄이 불 때는 입양서류를 막 만들어 가지고 와요, 또 임신도 안 했는데 했다고 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정 청약 사례를 보면서 과연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밝혀졌으니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처벌이 될 때, 특히 더…… 만약 의료기관하고 공모가 되었다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신을 했다는 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문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라는 이런 게 있어야지 다음부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특별공급이 잠잠이 청약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

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관계부처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재호 위원 그래서 함께 이 제도개선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저희 방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위원 박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감정원 사장님 나오셨나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예, 여기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10월 달에 개통 목표로 하는 새로운 청약시스템 그것 차질 없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咸珍圭 위원 나는 아까 못 들었어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개인정보에 관한 법안만 통과된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咸珍圭 위원 그것 국회 때문에 또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핑계 대시는 거예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咸珍圭 위원 그건 아니에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예.

○咸珍圭 위원 저도 5월 29일 날 주택법 개정안 발의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제 법안 내용?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咸珍圭 위원 이것 차질이 없어서……

작년 국정감사에도 제 기억으로는 여러 위원들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예산인력의 효율성, 법적제도 준비 이것 많이 지적을 했어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예, 알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예, 그렇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 청약자가 많이

나오고 수백 번 청약하는 사람……

중국 말에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서민은 대책이 있다’고 그래서 피해 가거든요.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세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예.

○咸珍圭 위원 그래서 저도 20년 청약을 해 놓고 기다렸었는데, 부적격 당첨자 많이 나오는 것 걸러내서 페널티 강하게 주세요.

지금 페널티는 있기는 있지요?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강력한 페널티를 주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장관님, 이번에 추정 국토부는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9000억쯤 됩니다.

○咸珍圭 위원 9000억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咸珍圭 위원 중복되고 이러는 것 없어요? 국가재정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건에 안 맞는 거 막 다 본예산 편성했는데 쓰지도 않고 막 제출하고 그런 것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강래 사장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목만 읽어 볼게요. 테콤의 특혜 의혹, 제가 국정감사 때 얘기하고 오늘 또 김포-파주 간 지하도로 건설 입찰 의혹 관련 이것 얘기하고 또 김치사업 특혜 제공……

제가 이것 50초뿐이 안 남아서 다 얘기 못 하는데, 3선 경험이 있으시고 제가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많이 찾아올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김치사업, 도로 입찰 문제, 커피……

테콤 하시는 분이 커피사업 하시던 분이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입찰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혹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咸珍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아까 박덕흠 간사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믿어요. 그것 믿는데 김치 사건, 테콤 커피 사건, 입찰 사건……

여기 내가 지금 다 얘기하고 싶어도, 이것 애

기한 것 다 제보가 와요. 김치가 거기 김치만 중요합니까? 기존에 냈던 김치 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하게. 나는 믿는 다니까요. 본인 믿는데, 김치 납품하던 사람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이것 정권 끝나고 나면 다 봅니다. 본인은 깨끗하시고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커피 사건, 김치 사건, 터널 사건, 이것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사장님 이름을 팔든 뭐하든. 정치권에 여기……

내가 사진 이것 다 보여 드릴까요? 내가 참 이름을 공개 안 하는데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이게 이 사람들이, 다 불만 있는 사람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민원이 오는 게……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정 경험 있고 그러시니까 설마 그렇겠느냐 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보 오는 것 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민경욱 위원이든 저든. 제가 폭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이런 게 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기간도 남으셨는데 찾아오는 사람 쳐버리세요, 쳐 버리시고.

정치활동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왜 없어요? 여기 무슨 보좌관 했던 사람,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왜 월마다 워크숍으로 무슨 특정 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아니, 도로공사가 그런 데 하는 겁니까, 도로공사 하는 데지? 특정 업체를 왜 매월 워크숍을 해가지고 공문을 돌리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사람들, 누구 이름 팔고 의장 이름 팔고 의원 이름 팔고 말이지.

그리고 공정거래법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보든가 법무부에 물어보세요. 왜 본사에 물어봐 가지고 야, 이것 내가 하는 게, 김치 이것 보급하는 게 문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느냐 물어보면, 아니, 사장님이 소속하고 있는 법무실에다가 이것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여기 한번 읽어 볼까요?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제성과 불공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공정거래법 소지가 없다.'
위에서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 밑에는, 이런 결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습니다. 사장님은 믿지만 자꾸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제가 얘기하기도 뭐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도로공사가 무슨 김치 홍보하는 데입니까? 커피 홍보해 주는 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김치 사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아까 문제 제기를 하시길래 잠깐 정회 시간에 제가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소 오해하실 부분이 없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咸珍圭** 위원 살펴보고 도로공사가 큰 기업인데 위상도 있는 건데 이런 게 자꾸 제보가 오고 그러면, 이게 알던 제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제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모른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이런 게 안 오도록, 야당에도 안 오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장관님, 주질의했던 것을 계속 물어볼게요.

동남권 관문공항, 정말 이용객 입장에서 한번 건설하는 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김해신공항이든 또 다른 대안이 되든 공항을 이용하는 영남권 주민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된다 주장해 왔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수요 포화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李憲昇**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6월 20일 정치적 합의로 인해서 확실해진 것은 2026년 개항 목표로 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개항 시기가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국토교통부하고 일부 지자체장 간의 합의서 한

장 때문에 1300만에 이르는 영남권 주민들이 언제까지 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년까지 개항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부산·경남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몇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소음이라든가 안전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 것도 또한 사실이기에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답을 찾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아니, 장관님, 26년까지 개항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일단 정확한 개항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장관님 말씀이 계속 다르고 있어요. 지난번 처음 물었을 때는 26년까지 개항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 일부에서 안전성 문제, 소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벌써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해공항 임시청사가 건설되더라도 연간 수용능력은 서비스 수준 3단계 기준으로 약 83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데 김해공항 여객 처리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들도 임시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커few(quiet) 시간을 좀 단축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李憲昇 위원** 그러면 커few 시간 단축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쪽 지역하고 함께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냥 지자체에 미루실 겁니까?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자체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지요. 결정권은 국토부에게 있기 때문에……

○**李憲昇 위원** 커few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구에서 한 시간 정도 단축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당길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앞뒤로 30분 정도씩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李憲昇 위원** 앞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러면 한 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 지금보다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李憲昇 위원** 제 생각에는 앞뒤로 한 시간보다는 뒤로 한 시간 당기는 게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공시제도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포레 단지 공시가격 통제로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아파트 앞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또 층별로 가격도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李憲昇 위원** 발표하시기 전에 감정을 해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수차례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단지 내 한두 채도 아니고 두 개 동 230가구 모두가 잘못 선정되었는데요. 정정된 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정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하지 않은 다른 인근 단지들은 여전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불만이 많은데, 이처럼 오류도 많고 제도 운용도 오락가락하면 누가 정부를 믿고 승복을 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공시제도 관련 자료요구를 국토부하고 감정원에 수차례 했는데 공시업무 인력 배정이라든지 출장비 내역 같은 기초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한 달째 답변을 미루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계속 안하실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앞으로 국정감사도 있고 이 자료가 지금부터 제출이 되어야만 또 저희들이 감사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그동안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옥신각신하기 싫으니까 그 밑에 직원들에게 잘 좀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러고.

제가 공시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7월 16일에 관련 전문가들하고 세미나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국장이 참석하셔 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현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 및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현미 장관과 김진숙 청장, 김현숙 청장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내일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목요일 오전 9시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 위원(28인)**

강 훈 식	김 상 훈	김 석 기	김 철 민
민 경 욱	박 덕 흠	박 순 자	박 재 호
박 홍 근	서 형 수	송 석 준	안 호 영
윤 관 석	윤 호 중	이 규 희	이 용 호
이 은 권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임 중 성	정 동 영	조 응 천
주 승 용	함 진 규	홍 철 호	황 회 희

○**청가 위원(2인)**

송 언 석 윤 영 일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장 대 섭
전 문 위 원	박 희 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	관	김	현	미
제 1 차 관		박	선	호
제 2 차 관		김	경	욱
주택토지실장		이	문	기
항공정책실장		권	용	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	기	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	진	숙
새만금개발청장		김	현	숙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	창	흠
한국도로공사				
사	장	이	강	래
기획조정실장		신	동	희
한국철도공사사장		손	병	석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임	남	수
한국공항공사사장		손	창	완
한국감정원장		김	학	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	재	광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	병	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	상	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	대	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손	봉	수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	창	학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	영	수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재)		권	태	명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	순	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	팔	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허	경	구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 월 일
김영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2019. 6. 19.
박영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2019. 6. 28.
김영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2019. 7. 4.

○**의안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7. 민경욱 · 김도읍 · 김명연 · 정유섭 · 이은권 · 김현아 · 신상진 · 박덕흠 · 윤재옥 · 박성중 의원 발의)

3월 28일 회부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28. 윤호중 · 윤일규 · 이규희 · 안호영 · 김병관 · 신동근 · 한정애 · 강훈식 · 윤관석 · 박용진 · 제윤경 · 김해영 · 심기준 · 전현희 · 서삼석 · 김병기 · 이학영 · 이찬열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28. 윤호중 · 윤일규 · 이규희 · 안호영 · 김병관 · 신동근 · 한정애 · 윤관석 · 박용진 · 제윤경 · 김해영 · 심기준 · 전현희 · 서삼석 · 김병기 · 이학영 ·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9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8. 윤호중 · 윤일규 · 이규희 · 안호영 · 김병관 · 한정애 · 강훈식 · 윤관석 · 박용진 · 김해영 · 심기준 · 서삼석 · 김병기 · 이학영 · 이찬열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9. 3. 29. 정부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송옥주 · 민병두 · 소병훈 · 송갑석 · 신창현 · 유승희 · 이상현 · 이용득 · 이후삼 · 전해숙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윤준호 · 고용진 · 이재정 · 김종민 · 송기현 · 박광운 · 황주홍 · 전재수 · 신창현 · 최인호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이헌승 · 함진규 · 홍철호 · 박순자 · 이현재 · 광대훈 · 김기선 · 추경호 · 김석기 · 이철규 · 최교일 · 김성원 · 엄용수 · 김학용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이헌승 · 함진규 · 홍철호 · 박순자 · 이현재 · 광대훈 · 김기선 · 추경호 · 김석기 · 이철규 · 최교일 · 김성원 · 엄용수 · 김학용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9. 이헌승 · 함진규 · 홍철호 · 박순자 · 이현재 · 광대훈 · 김기선 · 추경호 · 김석기 · 이철규 · 최교일 · 엄용수 · 김성원 · 김학용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전재수 · 신창현 · 이종걸 · 이찬열 · 김병기 · 최인호 · 박재호 · 윤준호 · 김해영 · 설훈 의원 발의)

이상 9건 4월 1일 회부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4. 1. 김영진 · 전해숙 · 정춘숙 · 서영교 · 백혜련 · 임종성 · 김영호 · 윤관석 · 김병기 · 인재근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 김철민 · 임종성 · 신동근 · 서삼석 · 정병국 · 신창현 · 황희 · 윤관석 · 전해숙 · 윤후덕 · 이찬열 · 노웅래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 김철민 · 임종성 · 신동근 · 서삼석 · 서형수 · 정병국 · 신창현 · 황희 · 윤관석 · 전해숙 · 윤후덕 · 이찬열 · 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일 회부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서삼석 · 김철민 · 이훈 · 심기준 · 김병기 · 윤일규 · 전해철 · 서영교 · 맹성규 · 조승래 · 김상희 · 박찬대 · 박정 의원 발의)

4월 3일 회부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4. 김정호 · 전재수 · 백재현 · 이용득 · 노웅래 · 이찬열 · 전해숙 · 김정우 · 강병원 · 유승희 · 김성환 · 유성엽 · 이춘석 의원 발의)

4월 5일 회부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2019. 4. 5. 김한표·윤영석·최연혜·이채익·정태욱·성일중·정우택·이진복·임이자·정갑윤·김현아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9. 4. 5. 윤후덕·신창현·임중성·박정·최재성·김종민·김병기·유동수·이규희·김경협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8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민경욱·추경호·김재원·윤상직·함진규·박덕흠·김명연·김석기·김선동·김정재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안호영·김현권·이용주·김철민·이용득·윤일규·소병훈·박재호·김영진·이원욱·강훈식·최인호·서삼석·이후삼·윤영일·어기구·이규희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4. 8. 안호영·김현권·이용주·김철민·이용득·윤일규·소병훈·박재호·김영진·이원욱·강훈식·최인호·서삼석·이후삼·윤영일·어기구·이규희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4. 8. 안호영·김현권·이용주·김철민·이용득·윤일규·소병훈·박재호·김영진·이원욱·강훈식·최인호·서삼석·이후삼·윤영일·어기구·이규희 의원 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함진규·박덕흠·김성원·이은권·송석준·윤관석·박재호·정유섭·강석진·이주영·박순자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안호영·김현권·이용주·김철민·이용득·윤일규·박재호·이원욱·강훈식·최인호·서삼석·이후삼·윤영일·어기구·송갑석·이규희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안호영·김현권·이용주·김철민·

이용득·윤일규·소병훈·박재호·김영진·이원욱·강훈식·최인호·서삼석·이후삼·윤영일·어기구·이규희 의원 발의)

이상 7건 4월 9일 회부됨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9. 4. 10. 김경협·김상희·원혜영·김정우·설훈·김철민·이규희·이상현·이학영·신창현·이인영·윤상현·유승희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10. 서형수·김경협·이용득·이상현·신동근·민홍철·김태년·제윤경·설훈·전재수·최인호·이학영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10. 박재호·유승희·심기준·안호영·송기현·박정·최인호·전재수·위성곤·윤호중·강병원·김해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1일 회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이상현·신동근·채이배·정춘숙·김정호·정세균·최재성·박재호·서형수·이동섭·이인영·손혜원·송옥주·조승래·정인화·김병기·안규백·안민석·노웅래 의원 발의)

4월 12일 회부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서형수·김경협·이용득·이상현·신동근·민홍철·설훈·전재수·최인호·이학영·김현아 의원 발의)

4월 15일 회부됨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박성중·문진국·정태욱·정진석·황영철·백승주·홍철호·박덕흠·윤종필·김석기·송언석·성일중·박명재·박순자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김영호·조승래·김영진·신창현·김병기·박선숙·전재수·김현권·윤준호·

노웅래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윤호중·이원욱·윤일규·강훈식·윤관석·변재일·이재정·김현권·김태년·윤영일·이학영·박재호·맹성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6일 회부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김상훈·추경호·심재철·곽대훈·정태욱·주호영·윤영석·민경욱·김재경·김기선·강훈식·변재일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이용호·박찬대·이찬열·오영훈·김광수·윤영일·정인화·조배숙·변재일·강훈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8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9. 4. 18. 정병국·김세연·정운천·김수민·원유철·이태규·이찬열·김철민·홍문표·김관영·주호영·이학재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주광덕·김도읍·김성찬·문진국·엄용수·심재철·강석진·김정재·박성중·정갑윤·정유섭·추경호·성일중·이은재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황주홍·이찬열·최도자·장병완·경대수·위성곤·오영훈·장정숙·유성엽·조배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2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4. 22. 신용현·임재훈·채이배·김삼화·김관영·김수민·황주홍·김성수·김경진·장병완·이동섭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4. 22. 신용현·임재훈·채이배·김삼화·김관영·김수민·황주홍·김성수·김경진·이동섭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9. 4. 22. 고용진·기동민·이철희·김성수·유동수·박정·한정애·이후삼·강훈식·금태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3일 회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9. 4. 22. 박인숙·김성원·김승희·정태욱·추경호·김세연·주호영·윤종필·이현재·정진석 의원 발의)
4월 24일 회부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19. 4. 25. 정부 제출)

이상 2건 4월 29일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서형수·이정미·송영길·이용득·이상헌·김정호·윤후덕·이용호·정춘숙·정성호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박경미·유동수·최재성·신창현·천정배·송갑석·윤후덕·박정·박찬대·윤준호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김민기·김성수·김영호·남인순·백혜련·신창현·유동수·이규희·인재근·정세균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인재근·권미혁·소병훈·최재성·김영진·김상희·오영훈·우원식·송갑석·박선숙·신경민·이인영·이재정·박정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인재근·권미혁·소병훈·최재성·김영진·김상희·오영훈·윤관석·우원식·송갑석·박선숙·신경민·이인영·이재정·박정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30일 회부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윤상현·박덕흠·김상훈·강석호·

박명재 · 이장우 · 이진복 · 김성원 · 김명연 · 송언석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김상훈 · 김승희 · 김동철 · 박인숙 · 김명연 · 윤재옥 · 문진국 · 정태욱 · 추경호 · 곽대훈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김영진 · 금태섭 · 김병기 · 김민기 · 김철민 · 이후삼 · 이종걸 · 이학영 · 전해숙 · 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박홍근 · 기동민 · 신창현 · 이규희 · 맹성규 · 박찬대 · 조정식 · 윤일규 · 최재성 · 남인순 · 임종성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박홍근 · 기동민 · 신창현 · 이규희 · 맹성규 · 강훈식 · 박찬대 · 조정식 · 윤일규 · 최재성 · 남인순 · 임종성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민경욱 · 윤재옥 · 문진국 · 주광덕 · 김진태 · 김선동 · 서청원 · 박덕흠 · 김명연 · 송희경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박재호 · 홍익표 · 김병기 · 신창현 · 김해영 · 민홍철 · 이용득 · 박정 · 송기현 · 위성곤 · 윤호중 · 최재성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박재호 · 홍익표 · 김병기 · 신창현 · 김해영 · 민홍철 · 이용득 · 박정 · 송기현 · 위성곤 · 윤호중 · 최재성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3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최인호 · 이상현 · 김성수 · 박재호 · 전재수 · 윤준호 · 강훈식 · 정세균 · 안호영 · 이학영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정인화 · 윤영일 · 박지원 · 최경환(평) · 이동섭 · 천정배 · 김종회 · 조배숙 · 황주홍 · 김종민 · 이용호 · 강훈식 · 김영춘 · 김광수 · 이용주 · 정동영 · 주승용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남인순 · 박정 · 신창현 · 송옥주 · 이규희 · 이상현 · 김성수 · 임종성 · 김민기 · 맹성규 의원 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5. 3. 정부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정인화 · 윤영일 · 박지원 · 최경환(평) · 이동섭 · 천정배 · 김종회 · 조배숙 · 황주홍 · 김종민 · 이용호 · 강훈식 · 김영춘 · 김광수 · 이용주 · 정동영 · 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7일 회부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이은권 · 김성찬 · 박덕흠 · 홍문표 · 유민봉 · 김규환 · 김성원 · 윤상현 · 정유섭 · 이명수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이은권 · 김성찬 · 정진석 · 홍문표 · 유민봉 · 김규환 · 김성원 · 윤상현 · 정용기 · 이명수 의원 발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이은권 · 김성찬 · 정진석 · 박덕흠 · 홍문표 · 민경욱 · 유민봉 · 김규환 · 김성원 · 윤상현 · 정유섭 · 이명수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이은권 · 김성찬 · 박덕흠 · 홍문표 · 민경욱 · 김규환 · 김성원 · 윤상현 · 정유섭 · 이명수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민경욱 · 윤재옥 · 문진국 · 주광덕 · 김진태 · 김선동 · 서청원 · 박덕흠 · 김명연 · 송희경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함진규·박순자·김승희·이종배·김상훈·김석기·장석춘·이현승·곽대훈·박맹우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박재호·홍익표·김병기·신창현·이용득·박정·송기현·최재성·최인호·윤준호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박재호·김병기·신창현·김정호·김해영·민홍철·박정·송기현·위성곤·윤호중·최재성·최인호·김영춘·윤준호·박홍근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박재호·김병기·김해영·민홍철·박정·송기현·위성곤·윤호중·최재성·최인호·박홍근·김영춘·윤준호 의원 발의)
이상 9건 5월 8일 회부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8. 홍철호·유의동·박덕흠·김명연·추경호·윤재옥·이학재·정갑윤·조훈현·김선동 의원 발의)
5월 9일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박홍근·강훈식·윤호중·기동민·서삼석·윤관석·이후삼·이용주·박찬대·박재호·윤영일·민홍철·김철민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백승주·박덕흠·최교일·추경호·윤재옥·신상진·박명재·최연혜·장석춘·김정재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김경협·백혜련·윤후덕·박정·김상희·이수혁·윤관석·민홍철·송영길·유승희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석현·안규백·유승희·김영춘·이종걸·김두관·김부겸·박재호·김종민·

민병두·조승래 의원 발의)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석현·안규백·유승희·김영춘·이종걸·김두관·김부겸·박재호·김종민·민병두·조승래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박완수·윤영석·권성동·金成泰·홍철호·김성찬·박대출·이은재·이주영·김재원 의원 발의)
이상 9건 5월 10일 회부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경대수·황주홍·이명수·김종희·박덕흠·김성찬·김현아·권성동·김재원·황영철·김재경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김경협·정세균·이원욱·김철민·김진표·신창현·신경민·박홍근·윤관석·우상호·김영진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이규희·신창현·홍익표·김종민·고용진·전해철·송갑석·신경민·박홍근·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4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민경욱·정유섭·김석기·김정재·김명연·박덕흠·윤상직·박대출·김진태·곽대훈 의원 발의)

5월 15일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조배숙·박주현·정동영·유성엽·김광수·장정숙·정인화·김종희·이용호·황주홍 의원 발의)

5월 17일 회부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17. 전현희·기동민·김병기·우원식·신경민·신창현·김진표·김병관·심재권·이종걸·박광은·표창원·금태섭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9. 5. 17. 김종민·김병기·김민기·원혜영·신창현·이규희·송옥주·홍익표·박광은·전해철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7. 함진규·박덕흠·이은권·김성원·송언석·지상욱·박순자·김철민·강석진·강훈식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9. 5. 17. 윤관석·김해영·이상현·김영호·유동수·임종성·박찬대·신창현·안호영·김철민·서형수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0일 회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5. 17. 김도읍·박완수·김태흠·추경호·이학재·김상훈·윤한홍·김성원·정갑윤·곽대훈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민경욱·정유섭·김석기·김정재·김명연·박덕흠·윤상직·박대출·김진태·곽대훈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서형수·전재수·최인호·원혜영·맹성규·이상현·권칠승·유승희·신동근·윤관석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함진규·김한표·곽상도·이학재·윤재욱·임이자·송희경·최연혜·박순자·강길부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최재성·정재호·조승래·위성곤·김병기·신창현·서영교·이용득·맹성규·김철민·김경협·노웅래·설훈·이상현·박재호·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21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5. 21. 민경욱·송석준·이현재·박순자·이은권·홍철호·김선동·서청원·김진태·김규환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9. 5. 21. 고용진·기동민·김병욱·김성수·박정·변재일·유동수·윤준호·이철희·이후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2일 회부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김석기·조훈현·김정재·정진석·유민봉·문진국·박명재·강석진·이은재·정갑윤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함진규·윤한홍·박대출·곽대훈·박순자·이현재·박덕흠·이완영·윤종필·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3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이정미·김종대·윤소하·추혜선·여영국·심상정·위성곤·이용득·민홍철·김종훈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정동영·강창일·금태섭·김광수·안호영·유성엽·윤관석·윤소하·이규희·이현재·장정숙·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이정미·김종대·윤소하·추혜선·여영국·심상정·위성곤·이용득·민홍철·김종훈 의원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5. 24. 서형수·신동근·황희·강훈식·이상현·김경협·한정애·이용득·송옥주·정춘숙 의원 발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5. 24. 서형수·신동근·황희·강훈식·이상현·김경협·한정애·이용득·송옥주·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27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19. 5. 27. 김상훈·김승희·윤영석·김동철·박인숙·김명연·윤재욱·문진국·정태욱·추경호·곽대훈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9. 5. 27. 김영진·김영호·김병기·정춘숙·백혜련·윤호중·신창현·김현권·이규희·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8일 회부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

(2019. 5. 28. 김태흠·김도읍·성일종·송희경·곽대훈·이연주·박맹우·이명수·윤종필·안상수·이종배·유민봉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9. 5. 28. 김도읍·김태흠·정갑윤·이완영·김진태·추경호·주호영·김기선·정점식·최교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9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2019. 5. 29. 채이배·박선숙·김현아·이동섭·송옥주·이상현·강병원·김관영·김수민·김종훈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5. 29. 함진규·김성원·강석진·송석준·윤상직·김규환·정태욱·윤영석·엄용수·최교일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 발의)

(2019. 5. 29. 황희·전해철·김종민·어기구·강훈식·최인호·안호영·김병기·김철민·홍익표·박재호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2019. 5. 29. 어기구·서삼석·송갑석·황희·박찬대·박정·김병기·신창현·맹성규·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30일 회부됨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19. 5. 31. 정부 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5. 31. 신창현·박찬대·윤준호·강창일·김해영·김종민·이규희·김철민·이석현·전재수·최재성·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3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6. 3. 송언석·성일종·박맹우·김정재·정병국·김광림·원유철·박덕흠·송희경·이완영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 발의)

(2019. 6. 3. 정인화·정동영·김종민·이동섭·홍문표·이상현·조배숙·윤영일·장정숙·천정배·오영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4일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19. 6. 4. 주광덕·김경진·곽상도·김성원·윤영석·김성찬·이완영·장석춘·정갑윤·성일종·추경호·정종섭·이양수·김정재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6. 4. 신창현·윤준호·김종민·맹성규·김철민·전재수·권철승·노웅래·서삼석·최운열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6. 4. 이용호·이찬열·강훈식·조배숙·유성엽·변재일·김종희·김상훈·기동민·박선숙·김광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5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6. 5. 박명재·윤영석·이상민·추경호·송언석·임이자·문진국·이종명·장석춘·이언주·정진석 의원 발의)

6월 7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7. 김영호·김종민·김병기·신창현·김성수·기동민·이찬열·박홍근·이철희·이재정 의원 발의)

6월 10일 회부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9. 6. 10. 박맹우·정갑윤·윤영석·추경호·이언주·김기선·이찬열·김성찬·송희경·박완수·최연혜 의원 발의)

주택관리사법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6. 10. 김철민·함진규·윤영일·이후삼·이은권·윤관석·박덕흠·임종성·강훈식·이규희·박순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1일 회부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이찬열·전혜숙·황주홍·이동섭·박찬대·전재수·유승희·김종희·이용득·위성곤 의원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서형수·김경협·황희·이상헌·이용득·이춘석·안호영·윤관석·송옥주·김해영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오영훈·이찬열·설훈·송영길·윤준호·정인화·이인영·우원식·고용진·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3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민경욱·추경호·이은권·김석기·김한표·장석춘·정태욱·윤영석·박순자·김선동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김병기·안규백·신창현·김영호·최재성·이상헌·김영진·최운열·김현권·이철희·백혜련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4일 회부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19. 6. 14. 이현승·전희경·추경호·이진복·김도읍·윤종필·김한표·윤영석·곽대훈·정갑윤·황주홍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9. 6. 14. 이종걸·이상민·신창현·유성엽·황주홍·김병욱·이석현·유승희·이상헌·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7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6. 18. 안호영·임종성·소병훈·김철민·신창현·송갑석·이용득·강훈식·윤후덕·서삼석·박정·황희·최인호 의원 발의)

6월 19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19. 박재호·이철희·황희·전재수·신창현·송기현·김해영·민홍철·유승희·이용득·이상헌·도종환·최인호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19. 박재호·최재성·김정호·전재수·신창현·김해영·민홍철·유승희·이용득·박홍근·이상헌·도종환·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0일 회부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박덕흠·장석춘·윤종필·김용태·홍문표·신보라·박성중·이언주·경대수·김현아·엄용수·원유철·여상규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노웅래·전현희·이규희·김영호·이철희·신창현·이동섭·심기준·김철민·김부겸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회부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4. 임종성·김철민·소병훈·안호영·김영진·강훈식·윤관석·이규희·조정식·신창현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4. 임종성·김철민·소병훈·안호영·강훈식·윤관석·이규희·조정식·신창현·김정우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4. 박재호·이철희·이춘석·최재성·김정호·전재수·신창현·송기현·김해영·민홍철·유승희·이용득·이상현·도종환·최인호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4. 박재호·이철희·전재수·신창현·송기현·민홍철·유승희·이용득·이상현·도종환·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5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민경욱·윤재욱·송희경·문진국·조훈현·이현재·박덕흠·김성원·윤영석·김선동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민경욱·윤재욱·송희경·문진국·조훈현·이현재·박덕흠·김성원·윤영석·김선동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6. 송언석·장석춘·원유철·김정재·신보라·추경호·박맹우·박명재·김수민·김한표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김철민·위성곤·신동근·안호영·서삼석·박홍근·송옥주·신창현·김현권·노웅래·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7일 회부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염동열·송희경·여상규·손금주·성일중·박덕흠·정운천·김정재·민경욱·최연혜·이종명·장석춘 의원 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박완수·주호영·김성원·추경호·김승희·김성찬·윤영석·김영우·조훈현·이찬열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정동영·박선숙·주승용·장정숙·김광수·황주홍·유성엽·표창원·금태섭·조배숙·정인화·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8. 박완수·추경호·엄용수·김영우·김승희·김성찬·조훈현·김도읍·주호영·윤영석·김재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1일 회부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 이현승·윤종필·김한표·전희경·신보라·정갑윤·함진규·주호영·이종구·주광덕·정태욱·문진국·민경욱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맹성규·강훈식·권미혁·기동민·박찬대·박홍근·서영교·서형수·이용득·이정미·전해철·한정애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김철민·송기현·윤관석·신창현·위성곤·김정우·전재수·서삼석·윤영일·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일 회부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 김영춘·송갑석·박완주·전현희·신창현·정동영·김민기·조배숙·이규희·최인호·김종민·서영교·유동수·여기구·황주홍·이훈·김철민·윤준호·위성곤·윤일규·서삼석·김한정·최재성·김병기·박정·기동민·임종성·안민석·이상현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 주승용·강훈식·유의동·김관영·고용진·이찬열·장정숙·임재훈·최도자·김수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3일 회부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김성원 · 김명연 · 김영우 · 김정재 · 박덕흠 · 박인숙 · 안상수 · 염동열 · 이만희 · 이은권 · 정유섭 · 함진규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김상훈 · 윤영석 · 이종배 · 김승희 · 정태욱 · 주호영 · 윤재옥 · 김명연 · 박명재 · 성일종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정동영 · 유성엽 · 김광수 · 장정숙 · 송영길 · 홍의락 · 주승용 · 김종회 · 최도자 · 조배숙 · 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4일 회부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박정 · 송갑석 · 신창현 · 유동수 · 이훈 · 김태년 · 어기구 · 인재근 · 남인순 · 신경민 의원 발의)

7월 5일 회부됨

○청원 회부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에 관한 청원

(2019. 4. 23. 석철호 외 57인으로부터 이현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24일 회부됨

○의안 철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윤준호 · 황주홍 · 신창현 · 고용진 · 김종민 · 송기현 · 최인호 · 전재수 · 박광운 · 이재정 의원 발의)

2019년 3월 29일 발의자 철회 요구